

Meritz Idea Bank



은행 Analyst 조아해
02. 6454-4870
like.cho@meritz.co.kr

금리경쟁력이 돋보이는 인터넷은행

인터넷은행 3사 1Q23 Review

현재 인터넷은행들은 1) NIM 하락을 대출성장률로 상쇄하고 있는 가운데, 2)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등 영향으로 대손비용률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며, 3)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상승 영향이 큰 토스뱅크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 역량 능력 증명이 필요한 국면

인터넷은행 중 자본비율이 가장 높은 카카오뱅크의 당기순이익은 1,019억원 (+52.5% YoY, +68.2% QoQ)으로 컨센서스를 23.4% 상회하며 양호한 실적을 창출. 케이뱅크는 104억원 (-57.6% YoY, -15.1% QoQ)으로 타행대비 높은 금리 경쟁력(NIM -44bp QoQ)을 내세움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당기순이익이 감소. 토스뱅크는 280억원 적자 (적지 YoY, 적지 QoQ)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로 업권 내 유일하게 NIM이 전분기대비 22bp 크게 개선됨에 따라 이자이익 증가세가 지속 중

금리 경쟁력은 여수신 성장으로

인터넷은행들은 금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높은 여수신 성장세를 기록 중. 인터넷은행 3사 대출성장률은 +6.9% QoQ(vs. 은행 업권 +0.5%). 특히 카카오뱅크는 위험가중치가 낮은 담보대출 익스포저 확대로 대손 부담 감소 중. 인터넷은행 3사 예금성장률은 +16.1% QoQ(vs. 은행 업권 -1.2%). 예금금리 경쟁력 외 상품 경쟁력도 존재. 대표적으로 3월 출시된 토스뱅크의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

인터넷은행들의 금리 경쟁력으로 인한 NIM 하락은 불가피하나, 대출성장률을 통해 이자이익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일례로 상장사인 카카오뱅크의 경우 연간 NIM 전년대비 10bp 하락 및 대출성장률 20% 가정 시, 이자이익이 전년대비 15.2%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

은행 4월 대출/수신 동향

4월 대출 중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0.2%, 23조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전월대비 증가세를 기록. 한편 4월 수신 중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수신 경쟁 완화로 인한 금리 매력도가 하락함에 따라 감소세 지속

은행 4월 NIM 동향

4월 잔액 NIS는 2.58%로 전월대비 2bp 하락세로 전환. 신규 NIS는 1.58%로 전월대비 3bp 하락. 4월 코픽스 금리 (신규-잔액) 차이가 -29bp로 전월 -15bp대비 확대된 점 고려 시, NIS 하락세 지속 예상

은행 건전성 동향

3월 연체율은 분기말 계절성 요인인 연체채권 관리 영향으로 전월대비 3bp 하락한 0.33%를 기록. 다만 5대 시중은행의 4월 연체율은 0.304%로(vs. 3월 0.272%, 22년 4월 0.186%) 보도됨

Part 1. 인터넷은행 1Q23 Review

인터넷은행 3사 비교 1. 당기순이익

상장사인 카카오뱅크는 5월 3일 1Q23 실적 발표를 진행한 가운데, 비상장사인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5월 31일 경영정보를 공시하였다.

각 사의 1Q23 당기순이익은 아래와 같다. 인터넷은행 중 자본비율이 가장 높은 카카오뱅크가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1) NIM 하락을 대출성장률로 상쇄하고 있는 가운데, 2)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등 영향으로 대손비용률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며, 3)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상승 영향이 큰 토스뱅크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 역량 능력 증명이 필요한 국면이다.

카카오뱅크 1,019억원 (+52.5% YoY, +68.2% QoQ)으로 컨센서스를 23.4% 상회하였다. 이는 1) NIM이 전분기대비 21bp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 대출성장률이 전분기대비 5.1%로 큰 폭으로 증가 및 3) 대출채권 매각이익 52억원, 단기성 유가증권 투자 이익 300억원 등 일회성 요인에 기인한다.

케이뱅크 104억원 (-57.6% YoY, -15.1% QoQ)을 기록하였다. 타행대비 높은 금리 경쟁력(NIM -44bp QoQ)을 내세움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다.

토스뱅크 280억원 적자 (적지 YoY, 적지 QoQ)를 기록하였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에 업권 내 유일하게 NIM이 전분기대비 22bp 크게 개선됨에 따라 이자이익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표1 인터넷은행 3사 당기순이익					
(십억원)	1Q23	4Q22	(% QoQ)	1Q22	(% YoY)
카카오뱅크	101.9	60.6	68.2	66.8	52.5
케이뱅크	10.4	12.2	(15.1)	24.5	(57.6)
토스뱅크	(28.0)	(92.6)	적지	(65.4)	적지
합계	84.3	(19.8)	적전	25.8	적전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 카카오뱅크 손익계산서

(십억원)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1Q23
순이자이익	162.6	187.5	200.7	217.2	246.8	277.4	262.2
이자수익	203.8	237.5	264.2	292.9	337.2	399.6	451.5
이자비용	(41.1)	(49.9)	(63.5)	(75.6)	(90.4)	(122.2)	(189.3)
순수수료이익	18.6	8.5	11.2	5.8	(0.4)	(6.1)	(0.7)
수수료수익	70.4	66.4	65.8	65.3	63.4	59.3	63.2
수수료비용	(51.8)	(57.9)	(54.7)	(59.5)	(63.7)	(65.4)	(63.9)
대손충당금	(29.6)	(32.4)	(32.0)	(46.9)	(36.6)	(57.7)	(51.0)
일반관리비	(67.3)	(98.2)	(79.1)	(90.6)	(93.5)	(130.3)	(92.8)
기타영업이익	(13.2)	(13.5)	(12.4)	(11.2)	(11.7)	2.6	18.7
영업이익	71.2	52.0	88.4	74.4	104.6	85.8	136.4
영업외손익	0.0	(0.2)	(0.3)	1.2	(0.0)	(2.3)	(1.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1.2	51.8	88.1	75.5	104.6	83.5	135.2
법인세	(19.2)	(15.6)	(21.3)	(18.5)	(25.8)	(23.0)	(33.4)
당기순이익	52.0	36.2	66.8	57.0	78.7	60.6	101.9
충전영업이익	100.8	84.4	120.4	121.3	141.2	143.6	187.4

자료: 카카오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3 카카오뱅크 재무상태표

(십억원)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1Q23
현금및예치금	851	1,219	2,099	2,884	2,066	1,382	4,406
매도가능금융자산	7,817	7,641	9,485	8,925	9,607	9,018	12,086
대출채권	24,971	26,362	26,686	26,650	28,336	28,053	29,338
유형자산	54	70	155	154	155	173	166
무형자산	34	33	34	29	28	28	29
기타자산	1,783	714	747	941	648	862	822
자산총계	35,510	36,040	39,205	39,583	40,840	39,516	46,846
예수부채	29,065	30,026	33,041	33,181	34,556	33,056	40,231
확정급여부채	4	0	0	0	2	0	0
충당부채	26	26	31	33	34	36	39
기타부채	937	467	581	812	635	710	751
부채총계	30,031	30,519	33,653	34,026	35,227	33,801	41,020
자본금	5,332	5,332	5,339	5,339	5,355	5,370	5,371
자본조정	12	27	24	20	5	(7)	1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	(28)	(67)	(117)	(140)	(102)	(56)
이익잉여금	154	190	257	314	393	453	502
자본총계	5,478	5,521	5,553	5,556	5,613	5,715	5,826

자료: 카카오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4 케이뱅크 손익계산서

(십억원)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1Q23
순이자이익	55.3	71.9	82.4	89.7	100.8	112.3	102.9
이자수익	66.0	83.6	97.0	110.7	139.0	175.2	203.4
이자비용	(10.7)	(11.7)	(14.6)	(21.0)	(38.2)	(62.9)	(100.5)
순수수료이익	3.9	7.2	1.9	2.2	0.0	(1.1)	1.1
수수료수익	9.5	13.9	8.4	8.9	7.5	7.2	9.1
수수료비용	(5.6)	(6.7)	(6.4)	(6.8)	(7.5)	(8.3)	(7.9)
대손충당금	(11.7)	(20.2)	(19.6)	(29.8)	(32.1)	(54.6)	(60.2)
일반관리비	(29.4)	(37.8)	(31.7)	(32.6)	(33.6)	(39.2)	(30.8)
기타영업이익	(0.5)	(5.9)	(6.0)	(6.2)	(6.7)	(4.3)	(7.9)
영업이익	17.6	15.2	27.0	23.3	28.4	13.2	12.0
영업외손익	0.0	(0.0)	(0.0)	0.1	(0.0)	(0.1)	(0.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7.6	15.2	27.0	23.4	28.4	13.0	11.4
법인세	(0.8)	(1.1)	(2.5)	(2.2)	(2.8)	(0.8)	(1.0)
당기순이익	16.8	14.1	24.5	21.3	25.6	12.2	10.4
충전영업이익	29.3	35.4	46.6	53.1	60.6	67.7	72.2

자료: 케이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5 케이뱅크 재무상태표

(십억원)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1Q23
현금및예치금	718	529	449	479	689	437	668
매도가능금융자산	3,662	3,714	3,765	3,659	4,439	4,314	4,571
대출채권	9,525	8,842	8,955	9,736	10,178	11,565	13,247
유형자산	34	36	34	35	34	37	34
무형자산	27	28	24	25	25	27	26
기타자산	301	185	238	245	176	251	242
자산총계	14,267	13,333	13,465	14,178	15,540	16,631	18,787
예수부채	12,306	11,317	11,545	12,178	13,491	14,605	16,640
확정급여부채	0	0	2	3	2	0	0
충당부채	2	2	2	2	2	2	2
기타부채	231	276	172	260	277	226	311
부채총계	12,539	11,596	11,720	12,443	13,772	14,833	16,953
자본금	2,142	2,142	2,142	2,142	2,142	2,142	1,878
자본조정	0	1	1	1	2	2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6)	(30)	(48)	(79)	(72)	(55)	(30)
이익잉여금	(389)	(375)	(350)	(329)	(304)	(291)	(17)
자본총계	1,728	1,738	1,744	1,736	1,769	1,798	1,834

자료: 케이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6 토스뱅크 손익계산서

(십억원)	1Q22	2Q22	3Q22	4Q22	1Q23
순이자이익	(2.9)	28.8	90.2	101.2	112.0
이자수익	71.4	154.9	229.2	256.7	271.9
이자비용	(74.2)	(126.1)	(139.0)	(155.5)	(159.9)
순수수료이익	(8.6)	(16.1)	(16.1)	(6.8)	(14.2)
수수료수익	2.4	4.6	7.9	10.3	12.5
수수료비용	(11.0)	(20.7)	(24.0)	(17.1)	(26.7)
대손충당금	(24.4)	(41.8)	(65.4)	(53.4)	(76.3)
일반관리비	(25.4)	(23.8)	(34.5)	(50.9)	(39.7)
투자금융자산거래손익	0.7	(0.8)	(11.5)	(53.5)	(0.2)
기타영업이익	(4.0)	(5.2)	(10.2)	(10.5)	(9.5)
영업이익	(64.6)	(58.9)	(47.6)	(73.8)	(28.0)
영업외손익	(0.0)	(0.0)	(0.0)	(0.0)	(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4.6)	(58.9)	(47.6)	(73.8)	(28.0)
법인세	(0.8)	0.0	0.0	(18.8)	0.0
당기순이익	(65.4)	(58.9)	(47.6)	(92.6)	(28.0)
총전영업이익	(40.2)	(17.1)	17.9	(20.4)	48.4

자료: 토스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7 토스뱅크 재무상태표

(십억원)	1Q22	2Q22	3Q22	4Q22	1Q23
현금및예치금	104	1,062	2,145	1,089	1,129
투자금융자산	13,849	21,065	17,604	13,011	12,853
대출채권	7,261	6,070	7,009	8,471	10,068
유형자산	38	37	38	42	44
무형자산	70	67	64	61	59
기타자산	464	865	499	724	609
자산총계	21,786	29,166	27,359	23,398	24,763
예수부채	21,005	28,479	23,144	20,297	22,063
차입금	0	0	2,960	1,800	1,200
순확정급여부채	2	3	4	5	6
충당부채	3	4	5	5	5
기타부채	174	166	425	328	306
부채총계	21,183	28,652	26,539	22,435	23,580
자본금	850	950	1,350	1,450	1,604
자본잉여금	0	1	1	1	24
자본조정	(7)	(8)	(13)	(12)	11
기타포괄손익	(68)	(197)	(239)	(104)	(57)
결손금	(172)	(231)	(279)	(371)	(399)
자본총계	603	514	820	963	1,183

자료: 토스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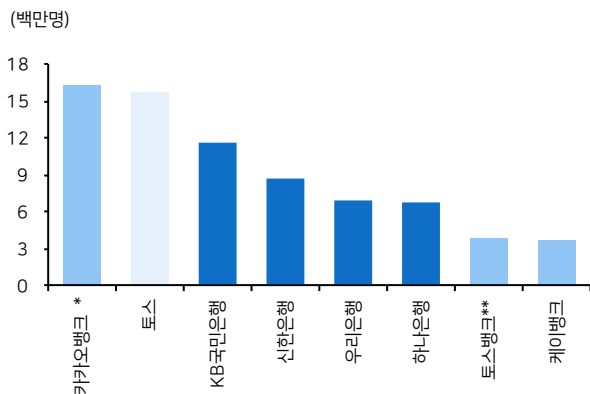
인터넷은행 3사 비교 2. 고객 수

카카오뱅크 1Q 고객 수는 전분기대비 3.7% 증가한 2,118만명으로 인터넷은행 중 가장 높다. MAU의 경우, 1,635만 명 (+7.9% YoY, +1.2% QoQ)으로 은행 업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로 파킹통장 2.6%로 인상, 26주 적금 연 7%로 인상 등 수신금리 경쟁력에 기인한다. 4월 기록통장 런칭 등 경쟁력 확보를 지속하고 있다.

케이뱅크 1Q 고객 수는 전분기대비 2.6% 증가한 870만 명을 기록하였다. 업비트 의존도가 높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타행대비 금리 경쟁력을 강화함에 따라 고객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일례로 3월 인터넷은행 중 처음으로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은행권 최저 수준의 금리로 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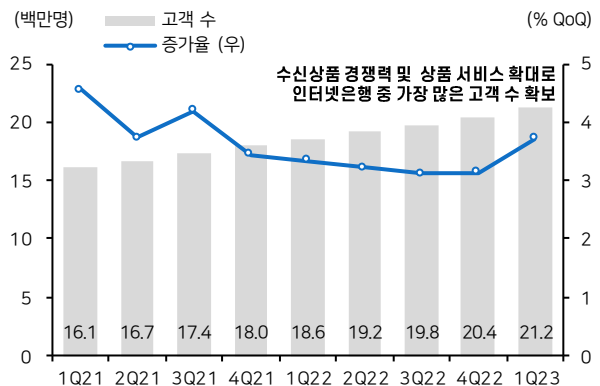
토스뱅크 1Q 고객 수는 전분기대비 2.2% 증가한 660만 명을 기록하였다. 출범 초기 당시 수시입출식 2% 금리 경쟁력으로 고객을 확보한 가운데, 현재 토스 앱의 강점인 '원앱'이라는 강점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3월에 출시한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 상품은 출시 초기 우려를 자아냈으나, 우려 종식 이후 수신상품 경쟁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인터넷은행 중 가장 높은 고객 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림1 금융 앱 MAU (3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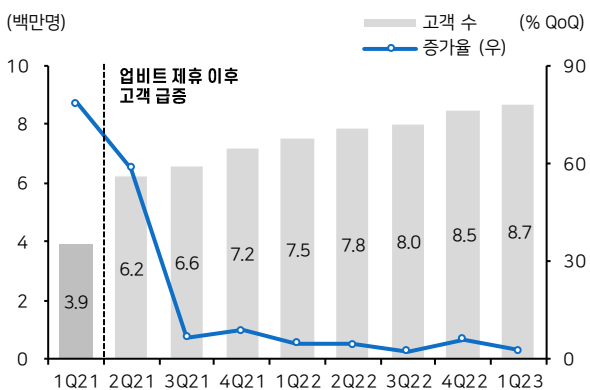
주: * 카카오뱅크 IR 자료 기준 ** 작년 12월말 기준
 자료: 운영덕 의원실, 모바일인덱스, 카카오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카카오뱅크 고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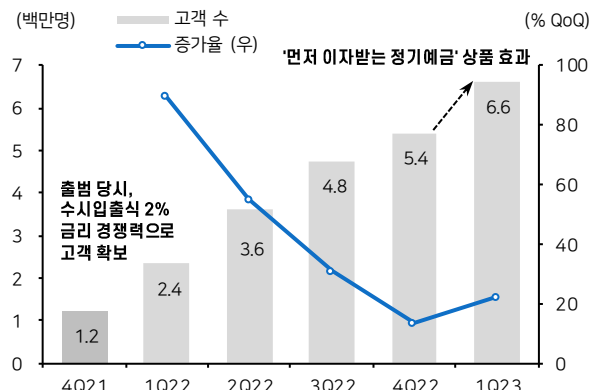
자료: 카카오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케이뱅크 고객 수



자료: 케이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토스뱅크 고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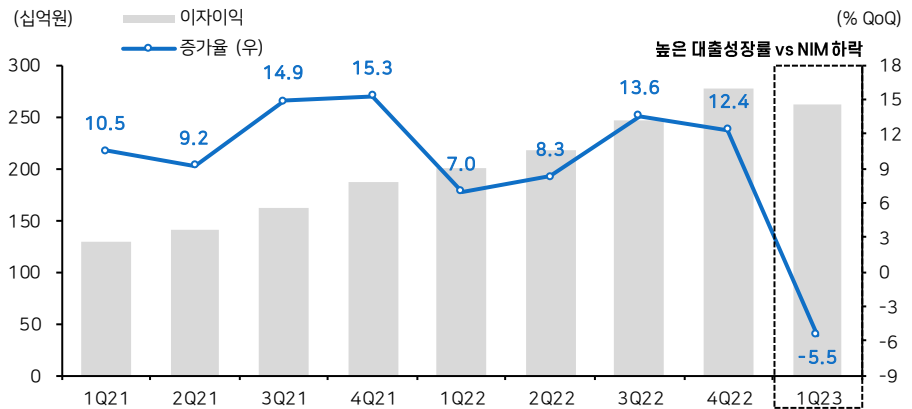
자료: 토스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인터넷은행 3사 비교 3. 이자이익

카카오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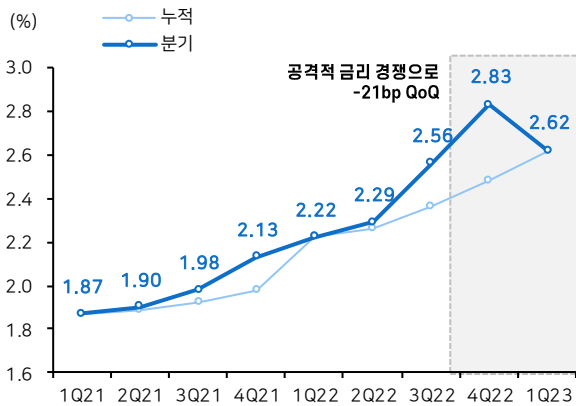
1Q 이자이익은 2,662억원 (+30.6% YoY, -5.5% QoQ)을 기록하였다. NIM은 공격적 금리 경쟁으로 전분기대비 21bp 큰 폭으로 하락한 2.62% 기록하였다. 1) 3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동사의 상품금리가 가장 낮은 가운데, 2) 저원가성 수신 비중이 56.8%로 전분기대비 4.9%p 하락(vs 은행 평균 -1.6%p QoQ)하였다. 다만 대출은 전분기대비 5.1%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성장을 견인한 주요 부문은 주택담보대출(+97.0% YoY)이다.

그림5 카카오뱅크 이자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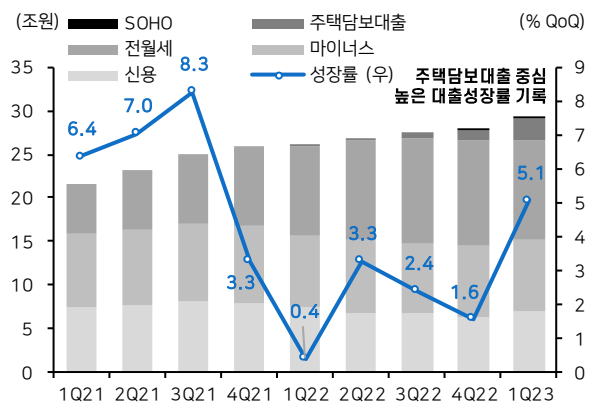
자료: 카카오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카카오뱅크 NIM



자료: 카카오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카카오뱅크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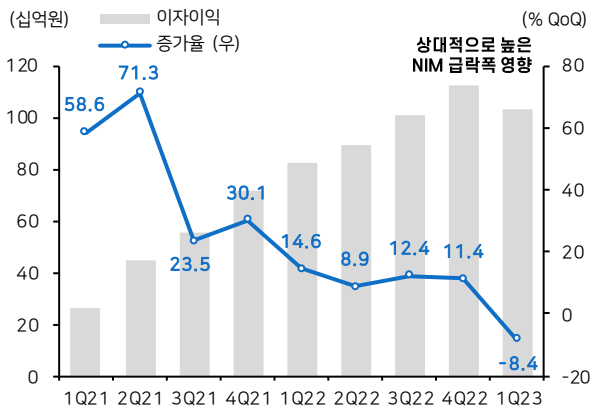


자료: 카카오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케이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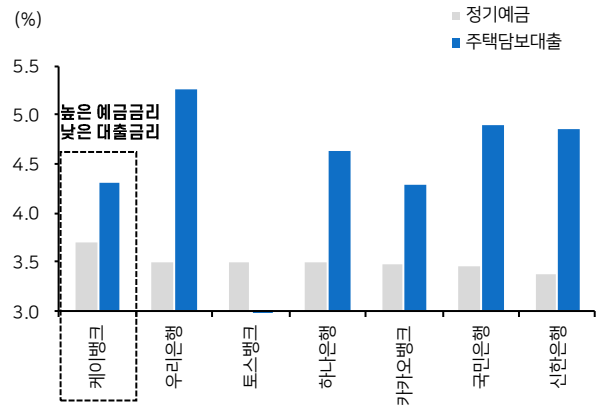
1Q 이자이익은 1,029억원 (+24.9% YoY, -8.4% QoQ)을 기록하였다. 1) 대출은 전분기대비 10.8% 증가하며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으나, 2) NIM은 전분기대비 44bp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은행들 NIM이 전분기대비 하락세를 시현하였으나, 케이뱅크의 하락폭이 가장 크다. 이는 타행대비 높은 금리 경쟁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일례로 1) '코드K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연 3.7%로 은행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2)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서민금융 제외 기준) 금리는 연 4.1%로 은행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림8 케이뱅크 이자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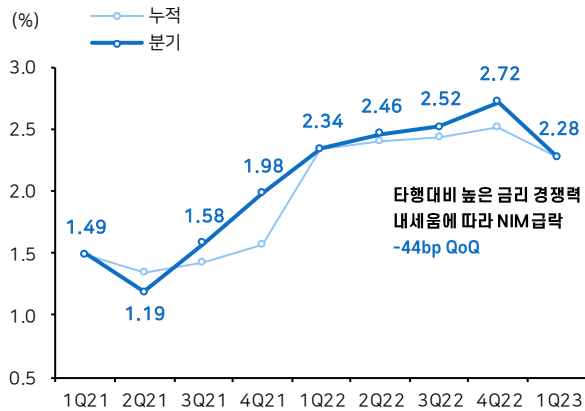
자료: 케이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은행별 정기예금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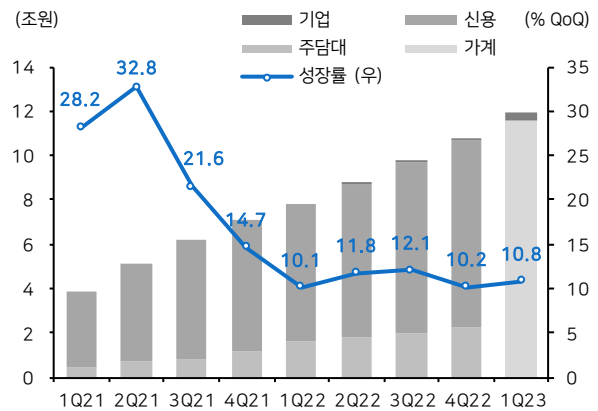
주: 정기예금 12개월 기본금리 기준
 자료: 은행연합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케이뱅크 NIM



자료: 케이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케이뱅크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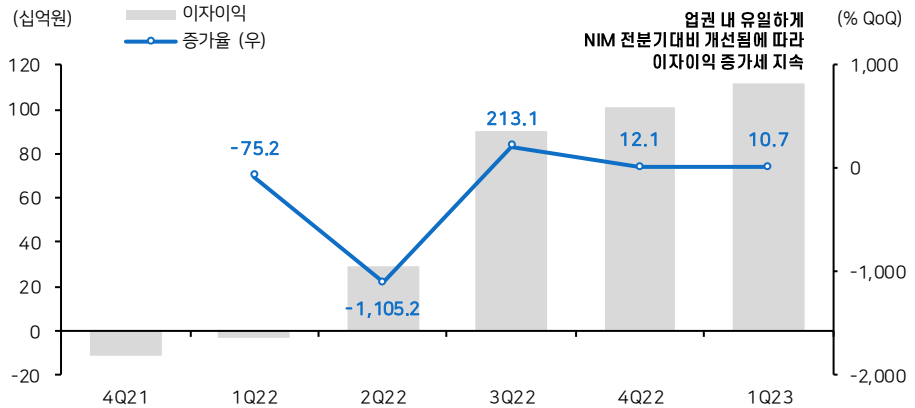


자료: 케이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토스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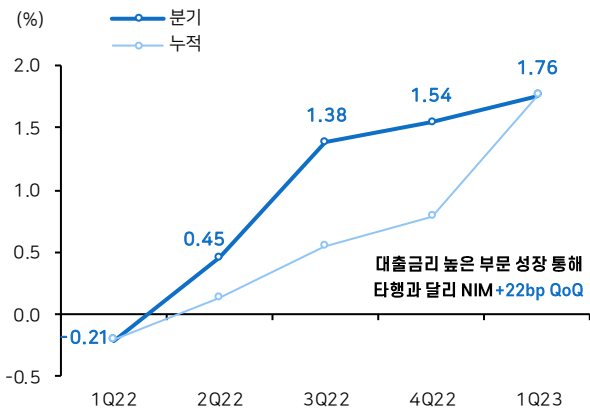
1Q 이자이익은 1,120억원 (흑전 YoY, +10.7% QoQ)을 기록하였다. 1) 대출은 전분기대비 7.7% 증가했으며, 2) NIM은 22bp 개선되었다. 은행 업권 내 유일하게 NIM이 전분기대비 개선세를 기록한 이유는 1) 예금금리에 있어 타행대비 공격적으로 금리 경쟁력을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2) 대출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림12 토스뱅크 이자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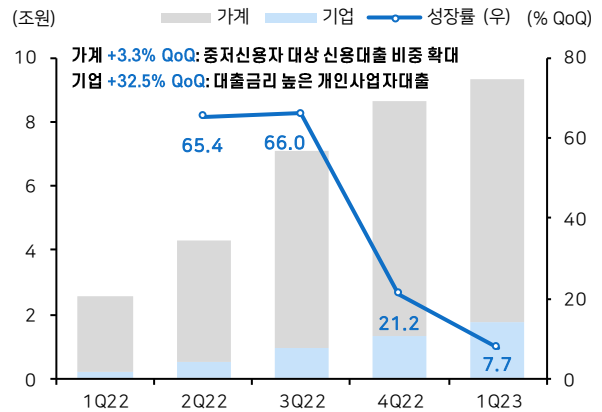
자료: 토스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토스뱅크 NIM



자료: 토스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토스뱅크 대출



자료: 토스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NIM 하락세 전환 이유, 금리 경쟁력

작년 인터넷은행들은 전통은행대비 높은 NIM 개선세를 시현하였다. 일례로 2022년 연간 기준 전통은행 NIM은 전년대비 21bp 상승(커버리지 은행 단순평균)하였으나, 인터넷은행들은 75bp로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1) 높은 저원가성 수신 비중 및 2)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증가에 기인한다.

다만 올해 인터넷은행 NIM 하락폭이 전통은행 대비 가파르다. 1Q23 중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전분기대비 21bp, 44bp 감소하며 전통은행 평균 7bp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높은 금리 경쟁력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일례로 4월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 4대 시중은행은 1월 대비 50bp 하락한 가운데,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은 72bp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은행들의 4.5%미만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은 88.8%로 시중은행 11.8%대비 높은 수준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예금금리 경쟁력까지 내세움에 따라 은행 업권 중 가장 높은 NIM 하락폭을 기록하였다. 정기예금, 적금 상품 모두 케이뱅크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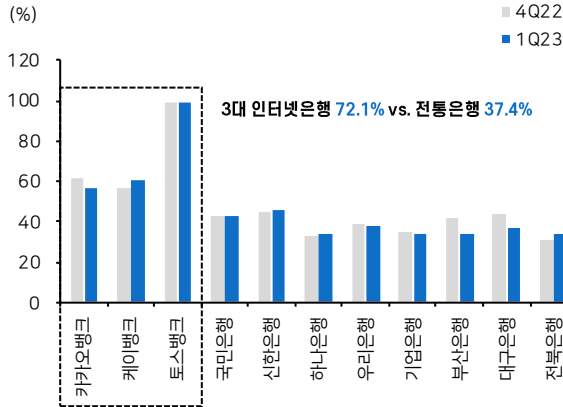
반면 토스뱅크는 타 인터넷은행과 달리 1)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확대 및 2) 금리가 높은 개인사업자 대출(4월 기준 9.10% vs. 가계 신용대출 6.52%) 성장으로 NIM이 전분기대비 22bp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1Q23 중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42.1%로 전분기대비 1.7%p 증가하였다. 반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동기간 각각 0.3% 증가, -1.2% 감소하였다.

표8 은행 NIM 추이

(%)	1Q22	2Q22	3Q22	4Q22	1Q23	(bp QoQ)
KB국민은행	1.66	1.73	1.76	1.77	1.79	2
신한은행	1.51	1.63	1.68	1.67	1.59	(8)
우리금융	1.49	1.58	1.62	1.68	1.65	(3)
하나금융	1.50	1.59	1.62	1.74	1.68	(6)
기업은행	1.61	1.68	1.83	1.98	1.87	(11)
부산은행	2.03	2.07	2.11	2.22	2.10	(12)
경남은행	1.88	1.93	2.02	2.10	1.93	(8)
대구은행	1.94	2.03	2.14	2.24	2.07	(17)
전북+광주은행	2.56	2.63	2.79	2.96	2.95	(1)
카카오뱅크	2.22	2.29	2.56	2.83	2.62	(21)
케이뱅크	2.34	2.46	2.52	2.72	2.28	(44)
토스뱅크	(0.21)	0.45	1.38	1.54	1.76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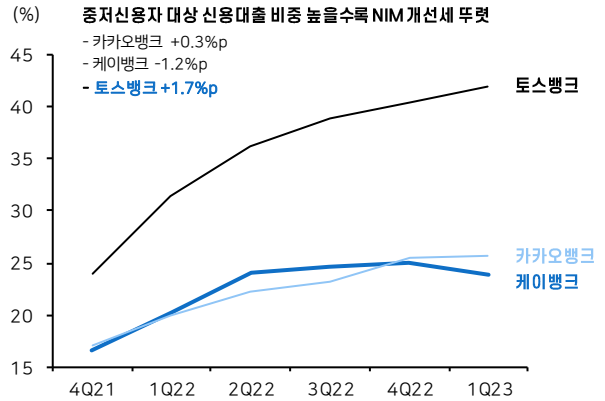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은행 저원가성 예금 비중 추이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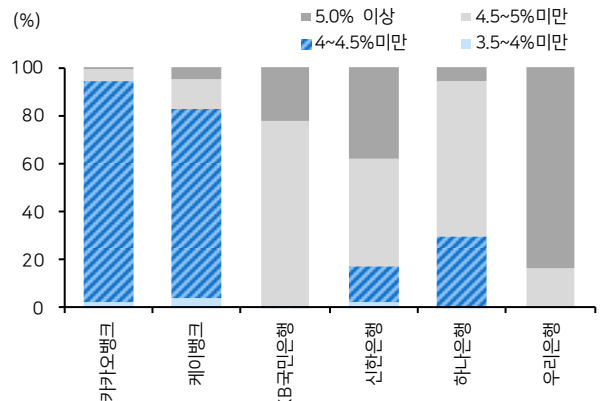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은행연합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9 주택담보대출금리: 1월 vs. 4월

(%)	1월	4월	(bp)
KB국민	5.36	4.73	(63)
신한	5.61	4.82	(79)
하나	5.02	4.59	(43)
우리	5.36	5.23	(13)
단순평균	5.34	4.84	(50)
카카오뱅크	4.49	3.85	(64)
케이뱅크	4.73	3.94	(79)
단순평균	4.61	3.90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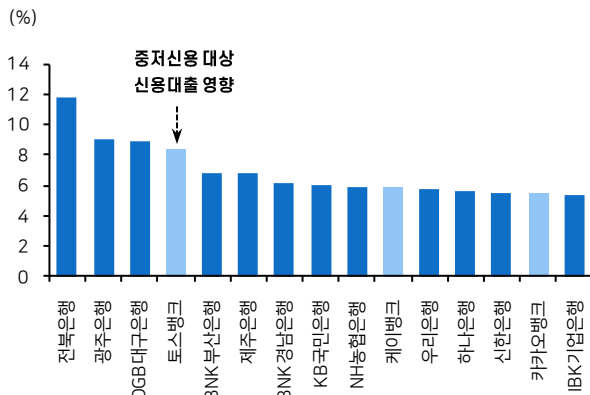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언론 보도,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금리 구간별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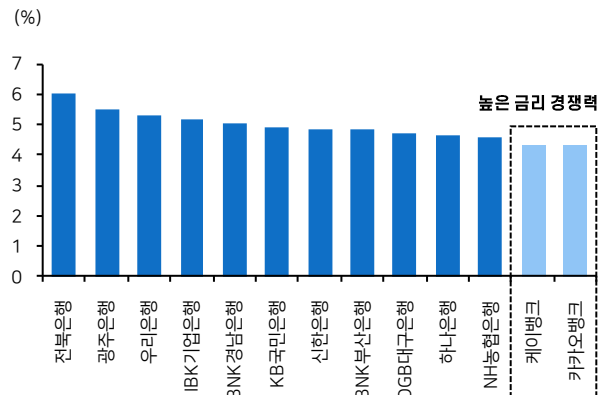
자료: 은행연합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은행 대출금리 비교: 가계 신용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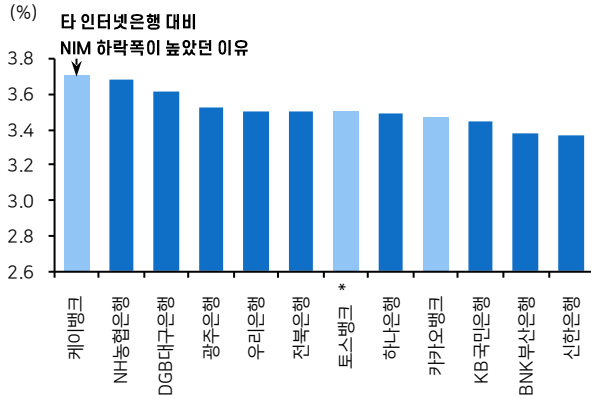
주: 서민금융 제외 기준
자료: 은행연합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은행 대출금리 비교: 가계 주택담보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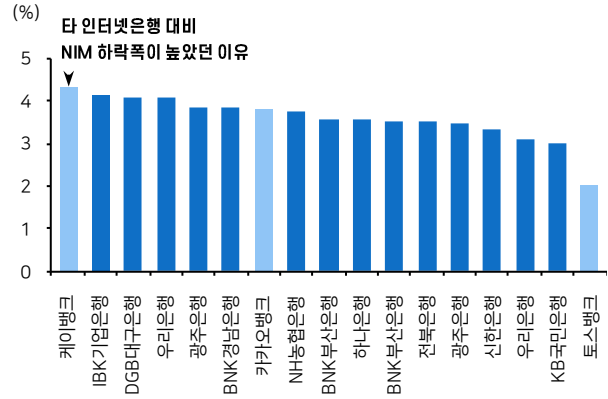
주: 분할상환방식 평균 기준
자료: 은행연합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은행 예금금리 비교: 정기예금



주: 12개월 기본금리 기준 *6개월 기준
 자료: 은행연합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은행 예금금리 비교: 적금



주: 12개월 기본금리 및 은행별 제일 높은 금리 상품 기준
 자료: 은행연합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0 인터넷은행 최다차주 대상 여신금리 현황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22년 7월말	22년 10월말	23년 2월말	23년 4월말	22년 7월말	22년 10월말	23년 2월말	23년 4월말	22년 7월말	22년 10월말	23년 2월말	23년 4월말
개인대출	신용대출	등급	5~6등급	5~6등급	5~6등급	5~6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4등급	3~4등급	3~4등급	3~4등급
		적용금리	7.81%	8.60%	7.54%	7.29%	6.49%	5.07%	4.90%	6.50%	5.15%	6.40%	6.43%	6.52%
	주택담보대출	등급	1~2등급	1~2등급	1~2등급	1~2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적용금리	4.20%	4.15%	4.29%	3.84%	4.09%	4.04%	4.31%	3.94%				
기업대출	기업일반대출	등급			1~3등급	1~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적용금리			5.73%	4.96%		5.52%	5.96%	5.64%	8.53%	9.65%	9.59%	9.10%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1 인터넷은행 수신금리 현황 (최고금리 기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22년 7월말	22년 10월말	23년 2월말	23년 4월말	22년 7월말	22년 10월말	23년 2월말	23년 4월말	22년 7월말	22년 10월말	23년 2월말	23년 4월말
보통예금		3.00%	3.00%	10.00%	10.00%					2.00%	2.30%	3.80%	3.30%
저축예금						3.00%	4.00%	4.00%	4.00%				
정기적금	6개월	3.00%	4.00%	7.00%	7.00%	2.90%	3.30%	4.10%	4.10%	3.00%	4.00%	4.50%	5.00%
	1년	2.90%	4.40%	4.00%	4.00%	3.20%	3.90%	4.80%	4.80%				
	2년	3.10%	4.45%	4.00%	4.00%	3.40%	3.95%	4.85%	4.85%				
	3년	3.40%	4.50%	4.00%	4.00%	3.70%	4.00%	4.90%	4.90%				
정기예금	3개월	1.80%	3.50%	3.20%	3.10%	1.80%	3.90%	3.10%	3.00%	0.50%	0.50%	0.50%	3.50%
	6개월	2.00%	3.80%	3.30%	3.20%	2.30%	4.20%	3.20%	3.30%	0.60%	0.60%	0.60%	3.50%
	1년	2.50%	4.50%	3.70%	3.40%	3.00%	4.60%	3.60%	3.60%	0.75%	0.75%	0.75%	0.75%
	2년	2.70%	4.55%	3.70%	3.40%	3.20%	4.30%	3.40%	3.40%	0.80%	0.80%	0.80%	0.80%
	3년	3.00%	4.60%	3.70%	3.40%	3.50%	4.30%	3.40%	3.40%	0.90%	0.90%	0.90%	0.90%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금리 경쟁력은 여수신 성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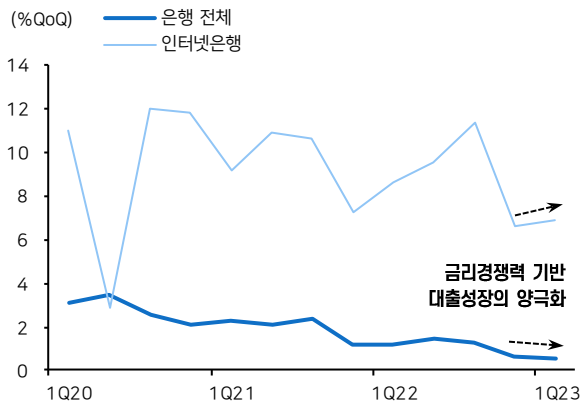
인터넷은행들은 금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높은 여수신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3사 합산 기준 전분기대비 대출성장률은 6.9%로 은행 업권 0.5%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낮은 담보 대출 익스포저를 늘림으로써 대손에 대한 부담을 감소해 나가고 있다.

인터넷은행 3사 합산 기준 전분기대비 예금성장률은 16.1%로 은행 업권 -1.2%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예금금리 경쟁력 외에도 상품 경쟁력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3월 24일 출시한 토스뱅크의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을 들 수 있다. 출시 약 33일 만에 판매액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이후 카카오뱅크도 5월 24일 세이프박스 이자 바로 받기를 출시한 것은 물론, 시중은행 또한 관련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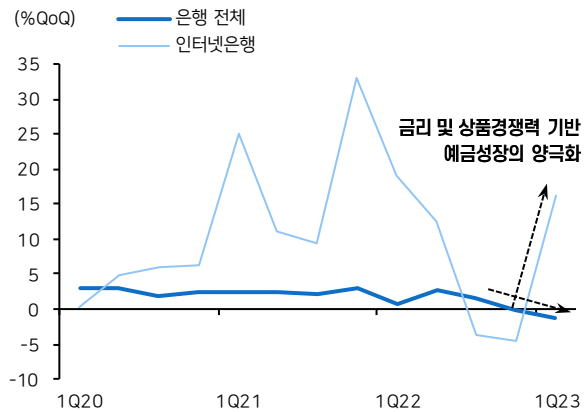
인터넷은행들의 금리 경쟁력으로 인한 NIM 하락은 불가피하나, 대출성장률을 통해 이자이익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상장사인 카카오뱅크의 경우 연간 NIM 전년대비 10bp 하락 및 대출성장률 20% 가정 시, 이자이익이 전년대비 15.2%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림22 대출성장률 추이: 은행 전체 vs. 카카오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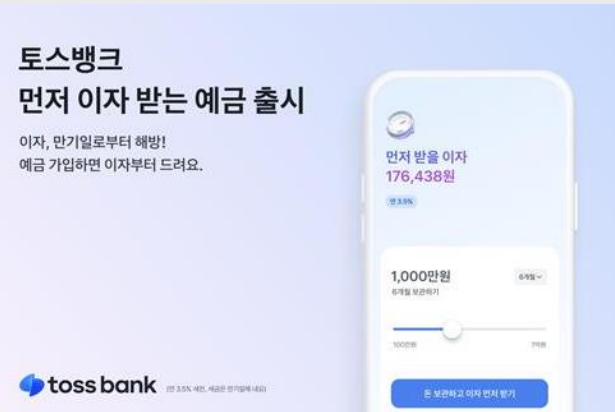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3 예금성장률 추이: 은행 전체 vs. 카카오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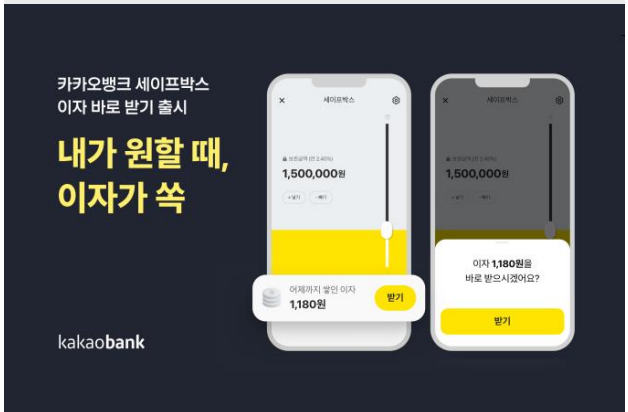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4 토스뱅크 '이자 바로 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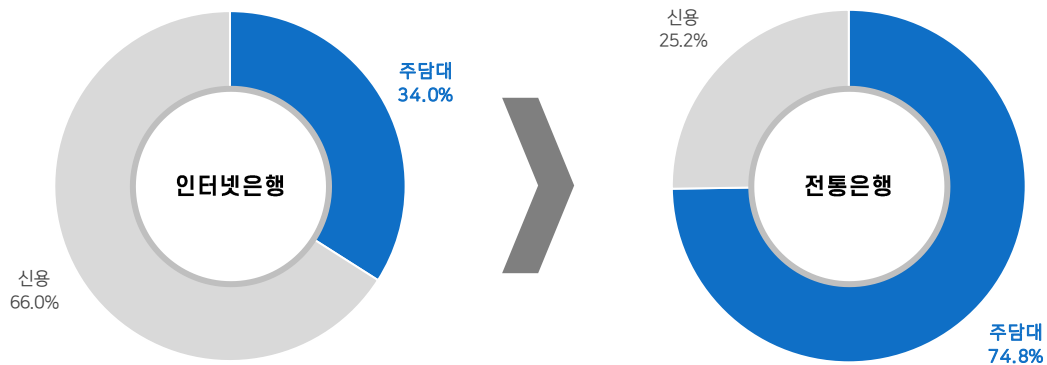
자료: 토스뱅크

그림25 카카오뱅크 '이자 바로 받기'



자료: 카카오뱅크

그림26 가계대출 포트폴리오: 인터넷은행 vs. 전통은행



주: 2022년 말 기준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2 카카오뱅크 이자이익 민감도 분석

NIM 변동률 (%p)	대출성장률 (%)					
	-0.14	-0.12	-0.10	-0.08	-0.06	
16	9.5	10.4	11.3	12.3	13.2	
18	11.3	12.3	13.2	14.2	15.1	
20	13.2	14.2	15.2	16.1	17.1	
22	15.1	16.1	17.1	18.1	19.0	
24	17.0	18.0	19.0	20.0	21.0	

주: 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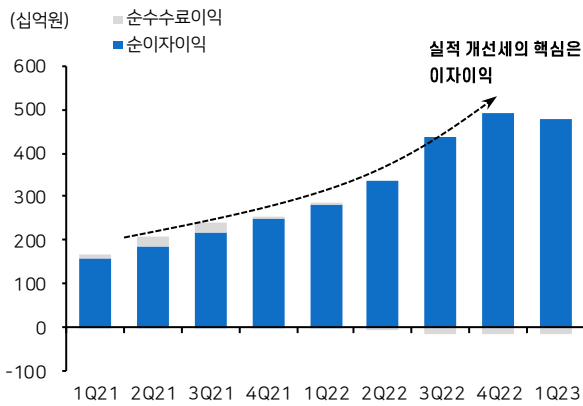
자료: 카카오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인터넷은행 3사 비교 4. 수수료이익

인터넷은행 3사 모두 이자이익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 3사 합산 기준 총영업수익 내 수수료이익은 작년 2Q 이후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수수료 수익원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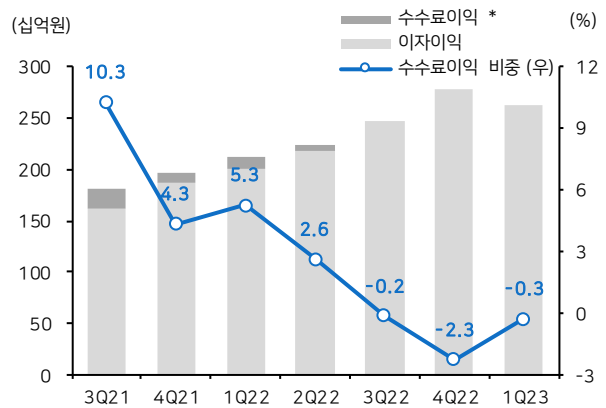
3사 중 가장 앞서있는 카카오뱅크를 살펴볼 시 수수료이익(플랫폼 수익 포함 기준)은 7억원 적자이나, 전분기대비 7.6% 증가하였다. 1) 연계대출은 전북은행 제휴 확대로 전분기대비 2,600억원(vs 4Q22 2,430억원) 증가하였으며, 2) 증권계좌개설은 작년 12월 국내외 주식 투자 서비스 추가로 전분기대비 9만좌(vs 4Q22 5만좌) 증가하였으며, 3) 제휴 신용카드는 하나, 우리 제휴 확대로 전분기대비 7만건(vs 4Q22 5만건) 증가했으며, 4) 광고 수익은 59억원으로 플랫폼 수익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수수료이익의 이익기여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림27 인터넷은행 3사 합산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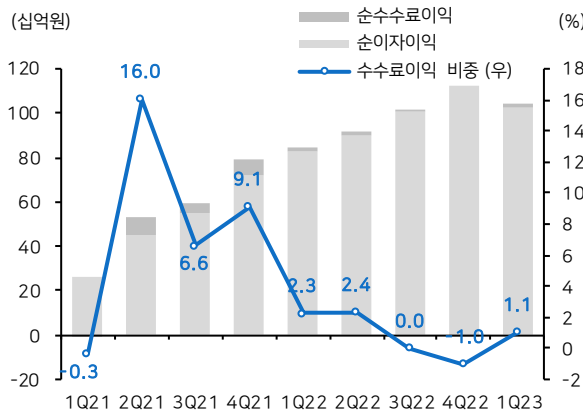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8 카카오뱅크 수수료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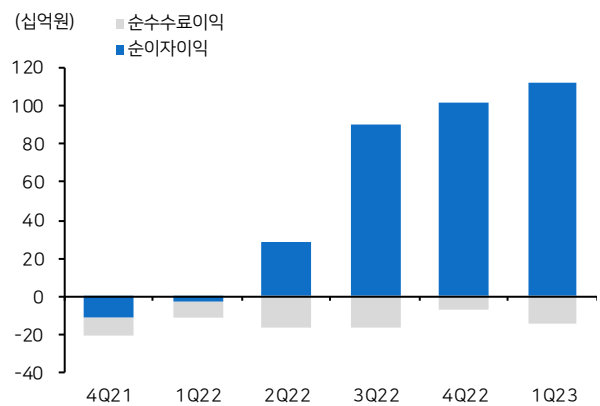
주: * 플랫폼 수익 포함
자료: 카카오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9 케이뱅크 수수료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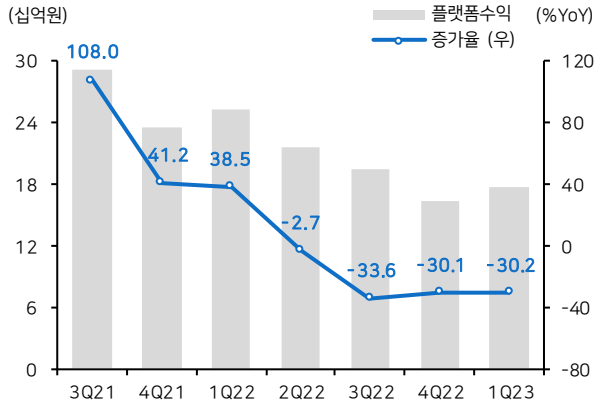
자료: 케이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0 토스뱅크 수수료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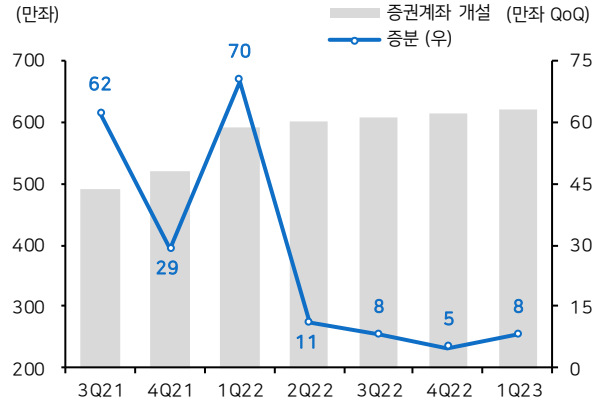
자료: 토스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1 카카오뱅크 플랫폼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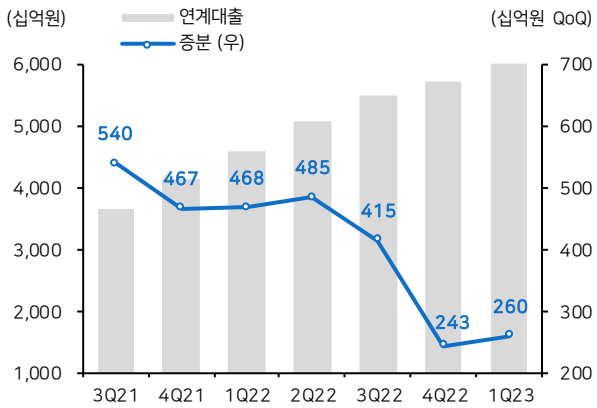
자료: 카카오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2 카카오뱅크 증권계좌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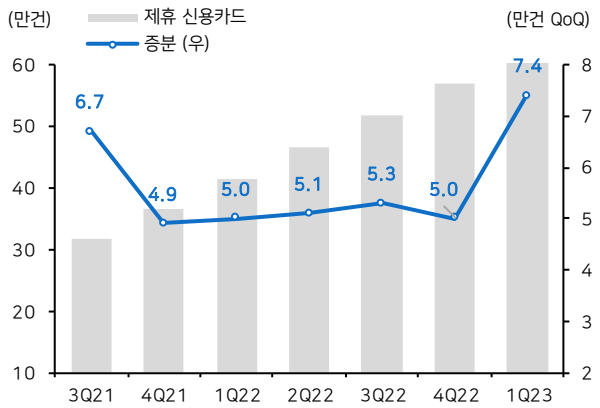
자료: 카카오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3 카카오뱅크 연계대출



자료: 카카오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4 카카오뱅크 제휴 신용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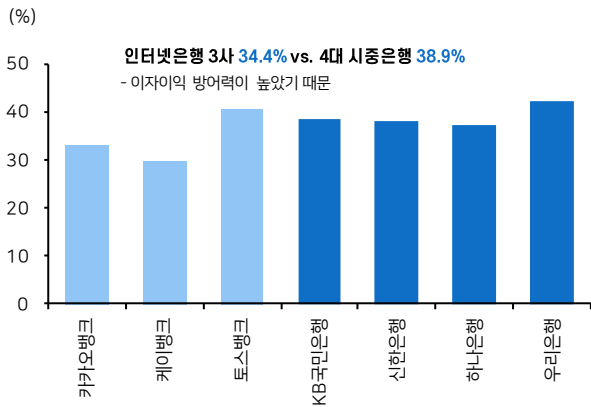
자료: 카카오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인터넷은행 3사 비교 5. 판관비

인터넷은행 3사 1Q 평균 CIR은 34.4%로 전분기대비 11.2%p 하락하였다. 이는 4대 시중은행 평균 CIR는 38.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1) 4Q의 성과급, 복리후생비, 희망퇴직 비용 등 계절성 비용이 소멸됨과 함께 2) 대출성장을 통한 이자이익 방어력이 시중은행대비 높았기 때문이다(1Q23 이자이익 인터넷은행 합산 -2.8% QoQ vs. 시중은행 합산 -8.3% Qo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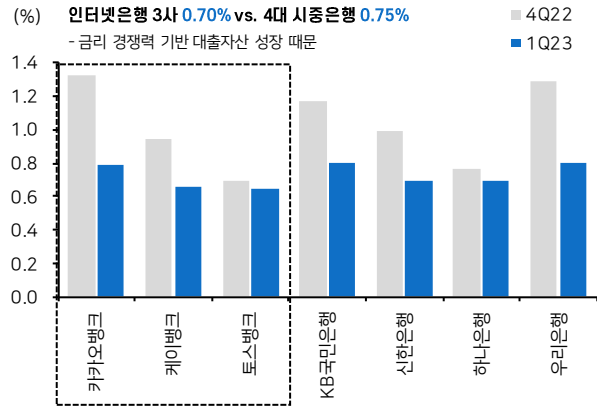
한편 인터넷은행 3사 1Q 평균 총자산대비 판관비용률은 0.70%로 전분기대비 29bp 하락하였다. 이 또한 4대 시중은행 평균 0.7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경쟁력을 기반으로 대출자산 규모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Q23 대출자산 인터넷은행 합산 +6.9% QoQ vs. 은행 전체 +0.5% QoQ)

그림35 은행 CIR 비교 (1Q23)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6 은행 총자산 대비 판관비용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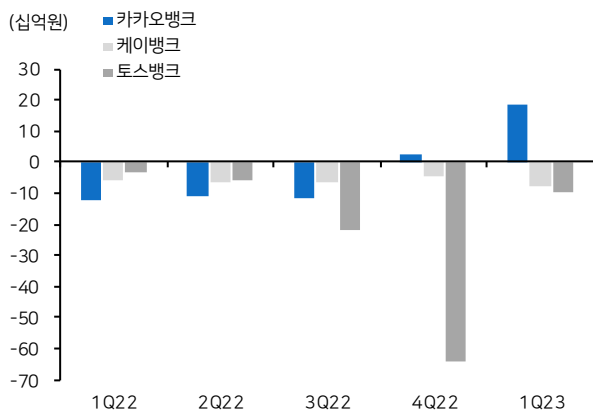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인터넷은행 3사 비교 6. 기타영업이익

인터넷은행 3사 기타영업이익은 11억원으로 전분기 657억원 적자 대비 흑자로 전환되었다. 이 중 카카오뱅크의 경우 187억원으로 전분기대비 632.2%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대출채권 매각이익 55억원, 단기성 유가증권 투자 이익 367억원 등 일회성 요인에 기인한다. 한편 4Q22 당시 유가증권손실을 인식했던 토스뱅크는 97억원 적자로 규모가 감소되었다.

그림37 인터넷은행 3사 기타영업이익 추이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3 카카오뱅크 1Q23 기타영업이익

(십억원)	카카오뱅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39.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2.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36.7
기타영업수익	6.8
외환거래이익	1.3
대출채권매각이익	5.5
기타영업잡수익	0.0
기타영업비용	(24.8)
외환거래손실	(0.0)
기금출연료	(22.0)
대출채권매매손실	(0.0)
기타영업잡비용	(2.8)
기타영업이익	(17.9)

자료: Dar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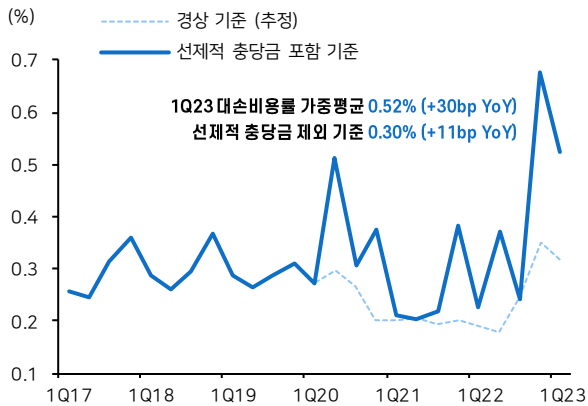
인터넷은행 3사 비교 7. 건전성

대부분의 은행들은 1Q 중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대손비용률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다. 일례로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8개 은행들은 1Q23 중 보수적인 경제전망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 규모를 전년동기대비 6.8배 증가한 1.0조원을 적립하였다.

인터넷은행 3사도 동일하다. 다만 선제적인 요인을 제외한 경상 대손비용률은 타행대비 높다. 상장사 카카오뱅크는 1Q 중 선제적 충당금 94억원을 적립함에 따라 대손비용률이 전년동기대비 21bp 급증한 0.72%를 기록하였다. 해당 요인을 제외할 시 대손비용률은 0.57%로 은행권 내 높은 수준이다. 비상장사 케이뱅크, 토스뱅크도 동일한 상황인 것으로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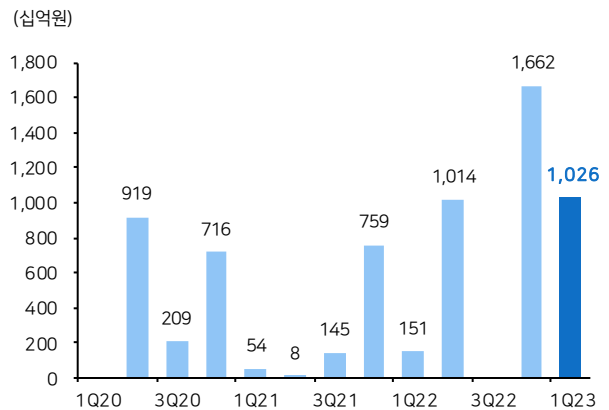
이 중 토스뱅크의 대손비용률은 3.28%로 업권 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은 물론, 전분기대비 81bp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건전성 지표가 가장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해당 차주들의 부실 영향이 불가피하다. 은행 업권 연체율은 1Q 중 전분기대비 8bp 증가한 가운데, 1) 카카오뱅크는 담보대출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연체율이 전분기대비 9bp 상승에 그쳤으며, 2)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전분기대비 1.2%p 감소함에 따라 연체율 또한 전분기대비 3bp 감소하였다. 반면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전분기대비 1.7%p 증가한 것은 물론, 개인사업자 대출이 성장함에 따라 연체율이 전분기대비 60bp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상 비중이 높은 토스뱅크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국면이다.

그림38 은행 가중평균 대손비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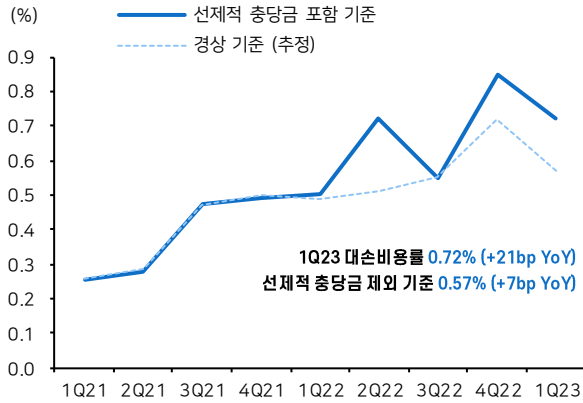
주: 인터넷은행 제외 기준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9 은행 합산 선제적 충당금 적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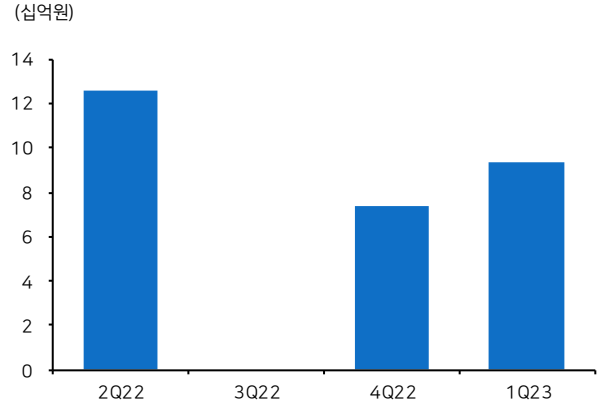
주: 인터넷은행 제외 기준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0 카카오뱅크 대손비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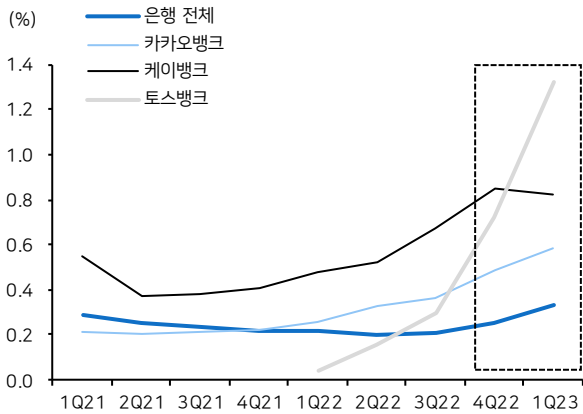
자료: 카카오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1 카카오뱅크 선제적 총당금 적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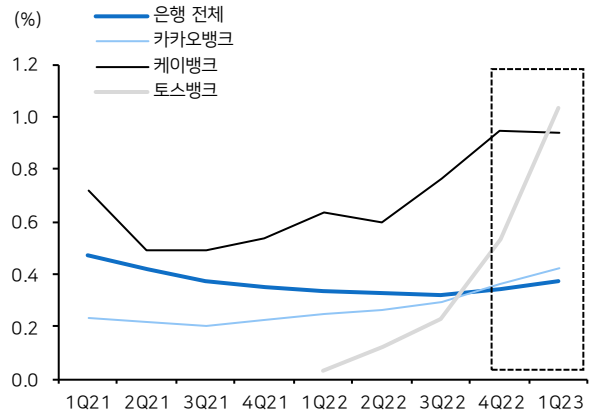
자료: 카카오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2 인터넷은행 3사 연체율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3 인터넷은행 3사 NPL 비율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4 은행 대손비용률 추이

(%)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1Q23	(bp QoQ)	(bp YoY)
KB금융	0.20	0.54	0.15	0.31	0.27	0.97	0.63	(34)	48
신한지주	0.21	0.46	0.26	0.37	0.24	0.46	0.48	2	22
하나금융	0.10	0.15	0.19	0.27	0.18	0.56	0.36	(20)	17
우리금융	0.13	0.17	0.20	0.38	0.14	0.26	0.31	5	11
기업은행	0.46	0.36	0.40	0.68	0.27	0.71	0.81	10	41
BNK금융	0.41	0.51	0.33	0.45	0.30	1.01	0.47	(54)	14
DGB금융	0.24	0.30	0.31	0.31	0.37	1.37	0.76	(61)	45
JB금융	0.45	0.28	0.32	0.51	0.55	0.93	0.77	(16)	45
총계	0.22	0.38	0.23	0.37	0.24	0.67	0.53	(14)	30
카카오뱅크	0.47	0.50	0.51	0.70	0.53	0.85	0.72	(13)	21
케이뱅크	0.76	1.14	1.00	1.37	1.31	2.02	2.02	(1)	101
토스뱅크			3.75	3.89	3.67	2.47	3.28	81	(47)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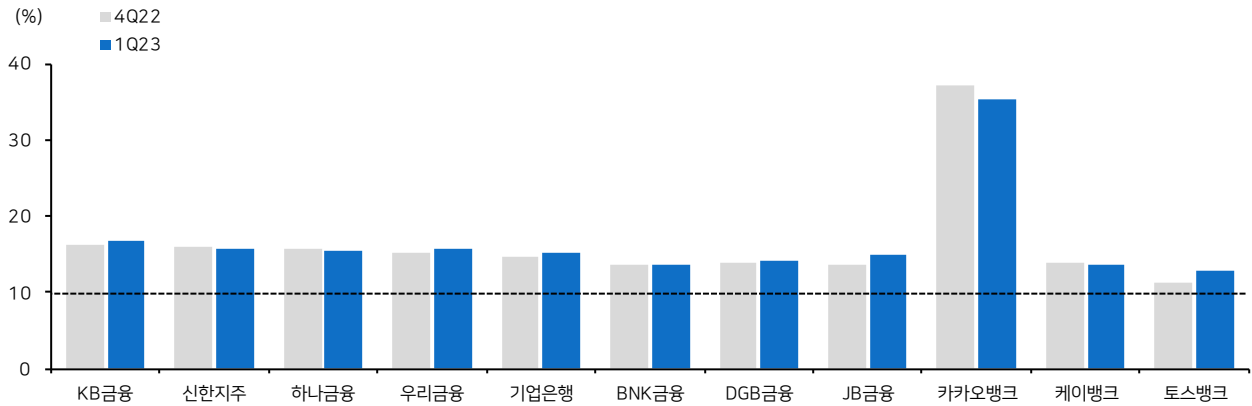
인터넷은행 3사 비교 8. 자본비율

카카오뱅크의 1Q22 BIS자기자본비율은 35.3%로 전분기대비 1.9%p 하락했으나 업종 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높은 자본비율 기반으로 주택담보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신규 대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13.6%로 전분기대비 0.4%p 하락하였다.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전분기대비 감소함에 따라 자본비율 하락폭이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토스뱅크는 12.8%로 전분기대비 1.4%p 상승하였다. 이는 3월 30일 2,000억원의 유상증자 납입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지속적인 유상증자가 필요한 구간으로 판단된다. 1Q23 기준 카카오뱅크의 신규 대출 여력은 69.1조원이나, 토스뱅크는 2.0조원이다. 토스뱅크의 1Q22-1Q23 평균 분기별 여신 증가 규모가 1.8조원인 점 감안 시 1분기 정도 성장이 가능한 여력으로 추산된다.

그림44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5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대출자산 한도 추정

(조원)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RWA	17.0	9.6
대출자산	29.3	9.3
위험가중치 (%) (A)	57.9	103.1
BIS 자본	6.0	1.2
BIS 자본 비율 (%)	35.3	12.8
규제비율 기준 대출자산 규모 추정		
BIS자본비율 10.5% 기준 RWA (B)	57.0	11.7
대출자산 (B/A)	98.4	11.3
성장 가능 대출자산	69.1	2.0
분기별 여신 증가 규모 (1Q22-1Q23 평균)	0.7	1.8
여신 증가 가능 분기	99	1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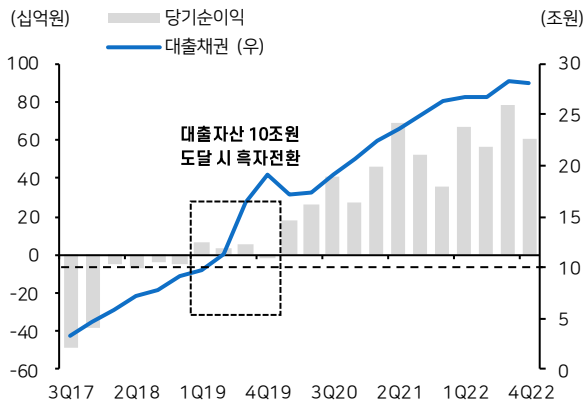
토스뱅크 연내 흑자전환 가능성 점검

토스뱅크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사측은 하반기 중 흑자 전환을 전망한다고 언급하였다. 타 인터넷은행들의 흑자전환 도달 필요 대출자산 규모를 기반으로, 토스뱅크의 1Q23 기준 자기자본 규모 고려 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타 인터넷은행들은 통상 대출자산 규모가 8~10조원을 도달할 시 흑자전환을 하였다. 현재 토스뱅크의 1Q23 기준 대출자산은 9.3조원이다. 타행과 같이 올해 흑자전환을 위해 대출자산을 10조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1조원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월 30일 유상증자 납입 이후의 토스뱅크 자기자본 규모가 1.2조원 고려 시 이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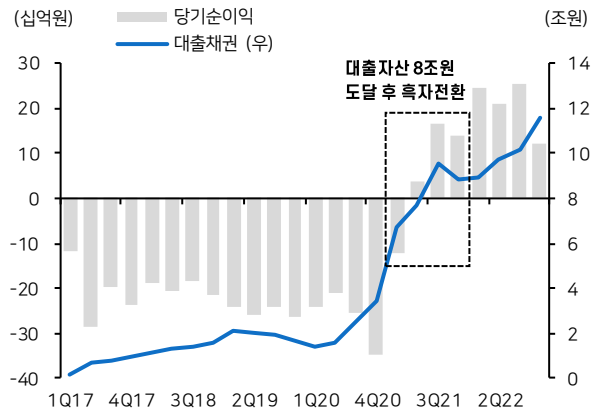
다만 이는 단순한 가정 기반이며 1) 차주들의 건전성 악화에 따른 대손비용률 급증, 2) 적절한 유상증자의 지속 여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45 카카오뱅크 당기순이익 vs. 대출채권



자료: 카카오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6 케이뱅크 당기순이익 vs. 대출채권



자료: 케이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6 대출자산 가정에 따른 필요 자기자본규모 추정

(십억원)	1Q23			
자기자본 (A)	1,224			
위험가중자산 (B)	9,596			
BIS자기자본비율 (%)	12.8			
대출자산 (C)	9,306			
위험가중치 (D=B/C) (%)	103.1			
대출자산 가정 (E)	10,000	12,000	14,000	16,000
위험가중자산 (F=E*D)	10,311	12,373	14,435	16,497
BIS자기자본비율 10% 기준 자기자본규모 (G=F*10%)	1,031	1,237	1,444	1,650
필요 자기자본규모 (G-A)	n/a	13	220	426

자료: 토스뱅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Part 2. 은행업 동향

은행 4월 대출 +0.4% MoM: 가계대출 증가세 전환

은행 4월 대출은 전월대비 0.4%, 9.8조원 증가하였다. 가계대출은 신용대출 감소 폭 축소로 올해 처음으로 전월대비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기업대출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대출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5,6월 추세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나, 은행의 2Q23 대출성장률은 1) 상승하고 있는 신용위험 전망치 및 2) 여전히 부진한 가계대출수요지수 고려 시, 1Q23(+0.5% QoQ)과 유사한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은행 신용위험지수 중 가계 신용위험은 2Q23E 42로 전분기 실제치인 39보다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우려가 높았던 2Q20 40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다만 상승하고 있는 연체율 지표 고려 시, 현 상황은 성장보다는 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상황임에 초점이 필요하다.

가계대출 +0.2% MoM (주택담보대출 +0.4%, 가계일반 -0.2%)

4월 중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0.2%, 2.3조원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전세자금대출 및 신용대출 감소폭이 축소됨에 따라 긍정적인 흐름세를 시현했으나, 2Q23E 가계대출수요지수가 (-) 수준이라는 점에서 추세 확인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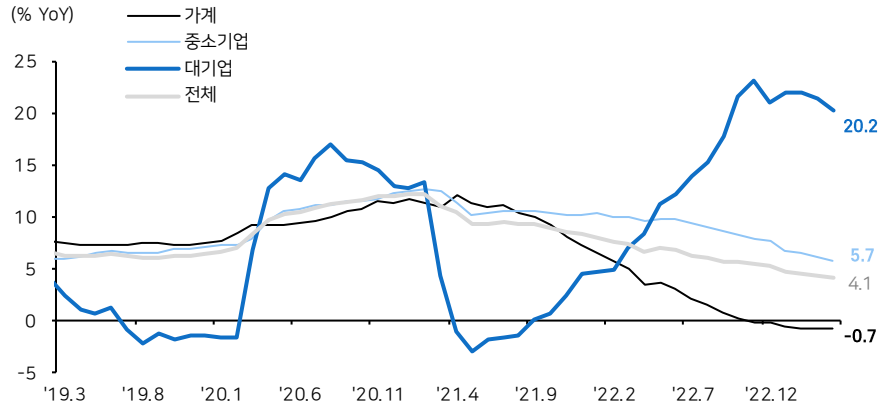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대비 2.8조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1)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금리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 3%대로 하락한 가운데, 2) 4월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80.3으로 회복(vs. 3월 27일 77.4)되었기 때문이다. 가계일반은 전월대비 0.5조원 감소에 그쳤다(vs 3월 -3.0조원). 이는 상여금 등 계절성 요인 소멸 및 주식투자 관련 일부 자금수요에 기인한다.

기업대출 +0.6% MoM (대기업 +1.4%, 중소기업 +0.5%)

4월 중 기업대출은 대출수요지속으로 전월대비 0.6%, 7.5조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vs. 3월 5.9조원). 2Q23E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수요지수가 각각 8(vs 1Q23 실제 3), 0(vs 1Q23 실제 6)인 점 고려 시 이와 같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업대출은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 위한 대출 상환 영향 소멸 및 배당금 지급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전월대비 3.1조원 증가하였다. 중소기업대출은 운전자금 수요 지속으로 전월대비 4.4조원 증가하였다.

그림47 은행 부문별 대출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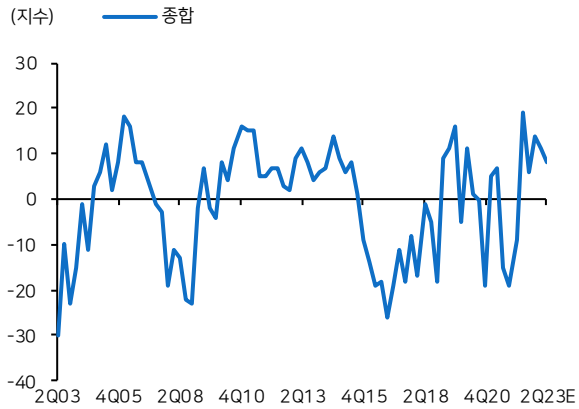
표17 은행 월별 대출 증감액 추이

(조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 MoM
가계	0.3	(1.3)	(0.7)	(1.0)	0.3	(4.7)	(2.7)	(0.7)	2.3	0.2
주택담보	1.6	0.9	1.3	1.0	3.1	0.0	(0.3)	2.3	2.8	0.4
가계일반	(1.3)	(2.2)	(1.9)	(2.0)	(2.8)	(4.7)	(2.4)	(3.0)	(0.5)	(0.2)
기업대출	8.7	9.4	13.7	10.5	(9.4)	7.9	5.2	5.9	7.5	0.6
대기업	2.9	4.7	9.3	6.5	(6.1)	6.6	0.9	0.1	3.1	1.4
중소기업	5.8	4.7	4.4	4.0	(3.3)	1.3	4.3	5.8	4.4	0.5
총대출	9.0	8.1	13.0	9.5	(9.1)	3.2	2.5	5.1	9.8	0.4

주: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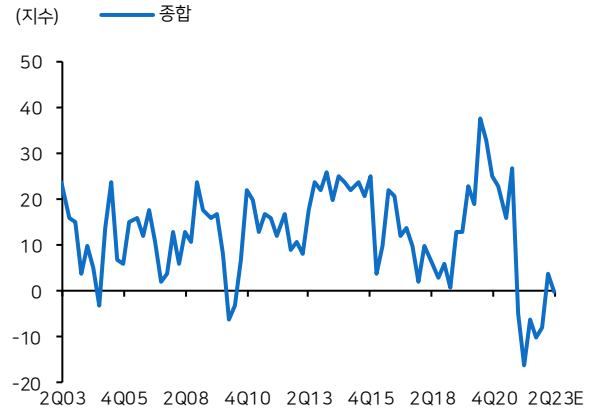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8 대출태도지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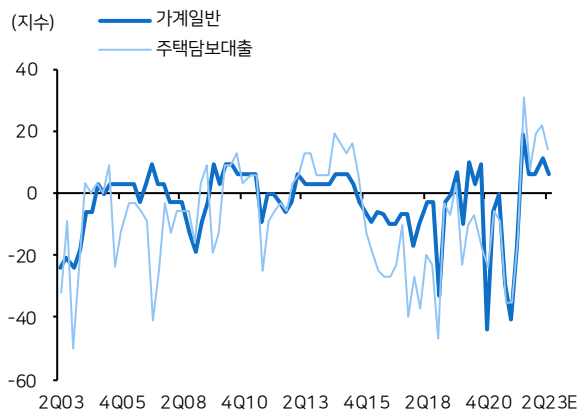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9 대출수요지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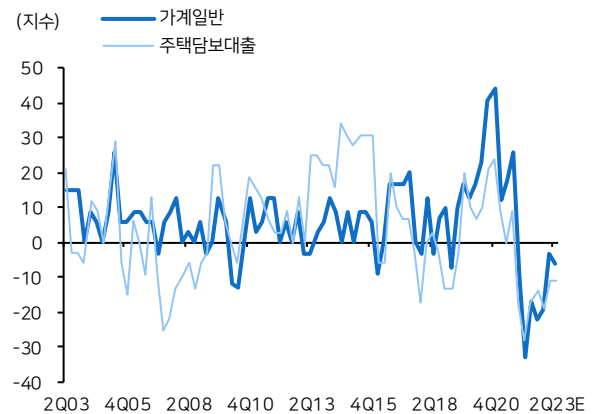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0 대출태도지수: 가계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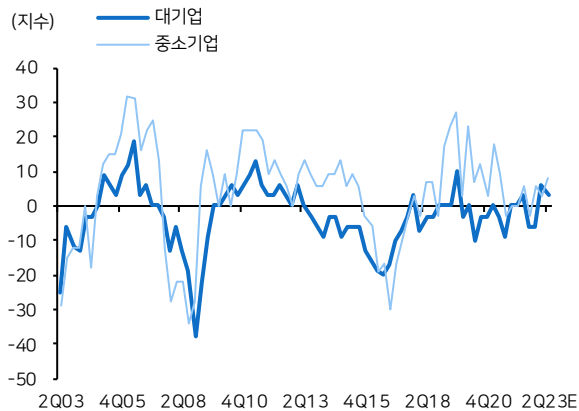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1 대출수요지수: 가계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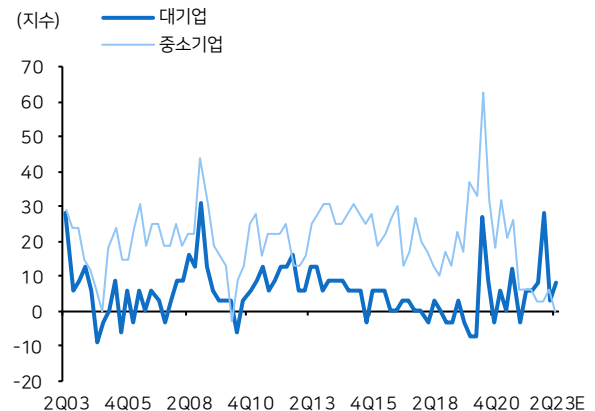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2 대출태도지수: 기업부문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3 대출수요지수: 기업부문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은행 4월 수신 -0.6% MoM: 감소세 지속

은행 4월 수신은 1) 기업자금 중심 유출, 2) 3%대까지 하락한 정기에금 금리 영향 등으로 전월대비 0.6%, 12.4조원 감소하였다.

수시입출식 -1.7% MoM

4월 중 수시입출식 수신은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납부, 배당금 지급 등으로 유출됨에 따라 전월대비 1.7%, 14.8조원 감소하였다 (vs. 3월 +1.5%, +12.5조원). 수시입출식 비중(=저원가성 비중)은 38.9%(-7.6%p YoY)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 중이다.

정기에금 -0.7%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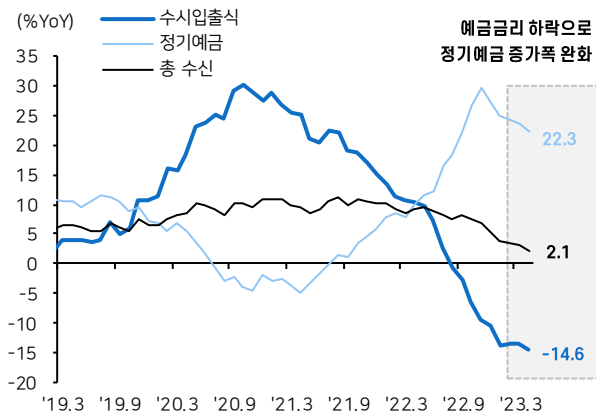
4월 중 정기에금은 전월대비 0.7%, 6.4조원 감소하였다 (vs. 3월 -0.9%, -8.8조원). 은행들의 수신 경쟁 완화로 정기에금 금리가 3%대로 하락하는 등 금리 매력도가 하락함에 따라 작년 12월 이후 감소세 지속되고 있다.

표18 은행 월별 예금 증감액 추이

(조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 MoM
수시입출식	(15.3)	(3.3)	(44.2)	(19.6)	11.6	(59.5)	21.4	12.5	(14.8)	(1.7)
정기에금	21.2	32.5	56.2	27.7	(15.1)	(0.9)	2.4	(8.8)	(6.4)	(0.7)
CD+RP+표지어음	1.2	2.6	(0.8)	0.2	(7.6)	13.5	1.4	(1.1)	9.6	16.4
은행채	0.9	3.8	(3.0)	(1.2)	(1.4)	1.9	(4.2)	(5.4)	(2.2)	(0.8)
총 수신	8.7	36.4	6.8	6.5	(15.2)	(45.4)	22.3	(3.0)	(12.4)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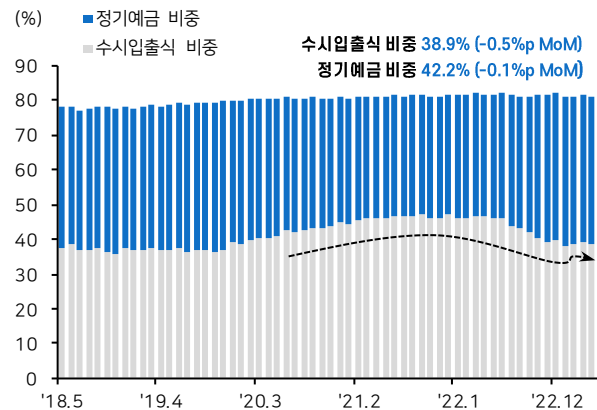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4 은행 부문별 예금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5 은행 수신 비중: 수시입출식 vs. 정기에금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은행 4월 NIM: 같은 결과, 다른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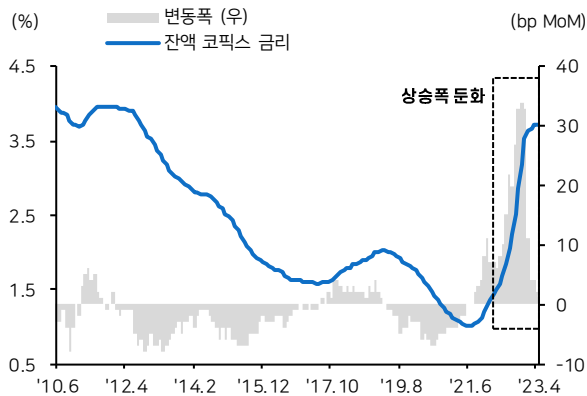
4월 잔액 코픽스 금리 3.73% (+2bp MoM)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 금리는 1) 잔액 기준 전월대비 2bp 증가한 3.73%로 상승폭이 빠르게 둔화되었으며, 2) 신규 기준 전월대비 12bp 감소한 3.44%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4월 평균 1년물 은행채 금리가 전월 평균 대비 17bp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은행 예적금 상품에 이어 대출 또한 기준금리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신규 코픽스 금리 하락분은 5월 16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하향 조정되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에 대해 1) KB국민은행 기준 연 4.09~5.49%에서 연 3.97~5.37%로, 2) 우리은행 기준 연 4.45~5.65%에서 연 4.33~5.53%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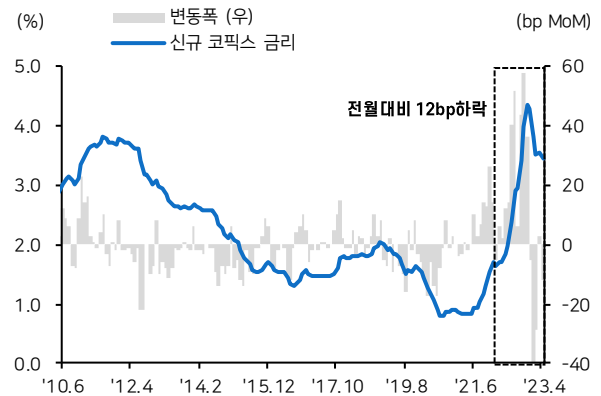
은행 NIM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인 코픽스 신규-잔액 차이는 -29bp로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인 것은 물론, 전월 -15bp대비 확대되었다. 1Q23에 이어 2Q23에도 은행 NIM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56 잔액 코픽스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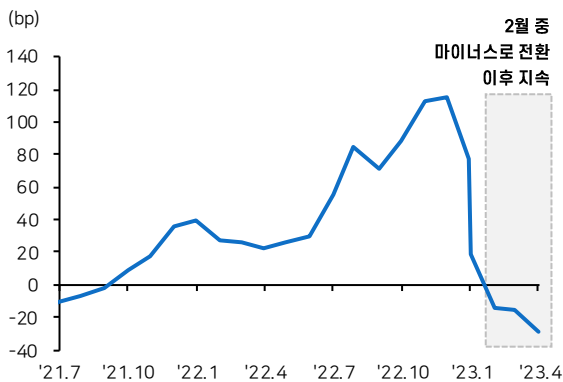
자료: 은행연합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7 신규 코픽스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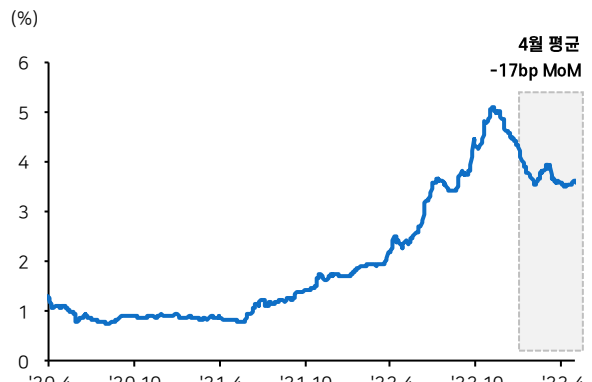
자료: 은행연합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8 (신규-잔액) 코픽스 금리차



자료: 금투협,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9 은행채 1년물 금리



주: 은행채 무보증 AAA 및 민평평균 기준
자료: 금투협,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4월 잔액 NIS 2.58% (-2bp MoM)

은행 수익성과 직결되는 잔액 NIS는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4월 코픽스 금리 (신규-잔액) 차이가 -29bp로 여전히 (-) 수준인 것은 물론, 전월 -15bp대비 확대된 수준인 점 고려 시, 잔액 NIS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잔액 NIS 2.58% (대출금리 Flat MoM, 수신금리 +2bp MoM)

4월 잔액 대출금리는 5.13%로 전월대비 Flat하였다. 올해 들어 대출금리 상승폭이 빠르게 둔화되었다. 부문별로 1) 기업대출은 5.20%로 전월대비 3bp 하락하였으며, 2) 가계대출은 5.04%로 전월대비 3bp 상승하였다.

4월 잔액 예금금리는 2.55%로 전월대비 2bp 상승하였다. 부문별로 1) 저원가성인 요구불 예금금리가 전월대비 2bp 상승한 가운데, 2) 저축성 및 시장성 예금금리도 각각 1bp, 5bp 상승하며 전체 조달금리 상승 견인하였다.

2) 신규 NIS 1.58% (대출금리 -16bp MoM, 수신금리 -13bp MoM)

신규 NIS는 1.58%로 전월대비 3bp 하락하였다. 대출금리 하락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4월 신규 대출금리는 5.01%로 전월대비 16bp 하락하였다. 부문별로 1) 기업대출은 5.09%로 전월대비 16bp 하락, 2) 가계대출은 4.82%로 14bp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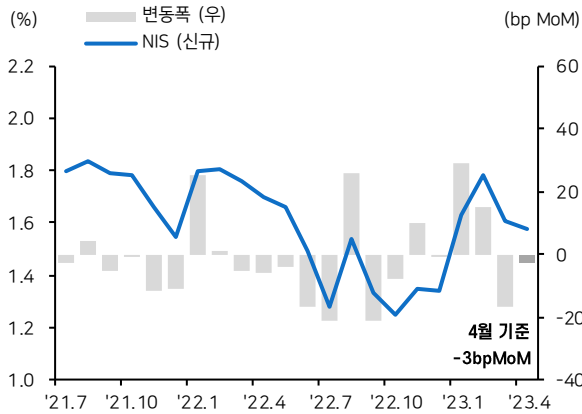
4월 신규 예금금리는 3.43%로 전월대비 13bp 하락하였다. 부문별로 저축성 예금금리 및 시장성 예금금리가 각각 12bp, 20bp 하락하였다.

NIM 하락 원인 이동 중

은행 NIM 하락은 2Q23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락 원인이 예금금리 상승에서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동 중이다. 4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4월 3.4%로 빠르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4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8%로 1월 대비 50bp 하락. 신용대출 금리 또한 5.8%로 1월 대비 74bp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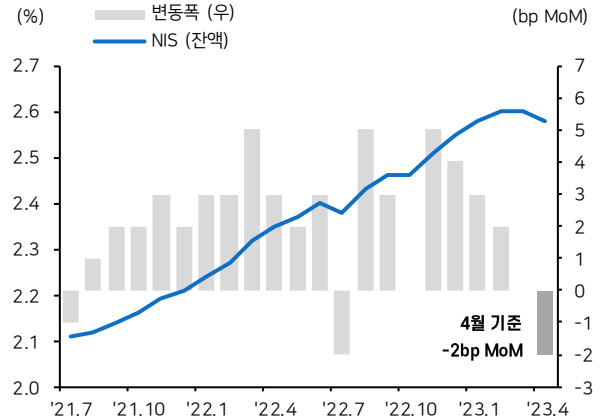
다만 대출금리 하락은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연체율 지표 악화 진정(대손비용률 감소) 및 부동산 시장 회복 기여(대출성장률 회복 및 대손비용률 감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60 신규 NI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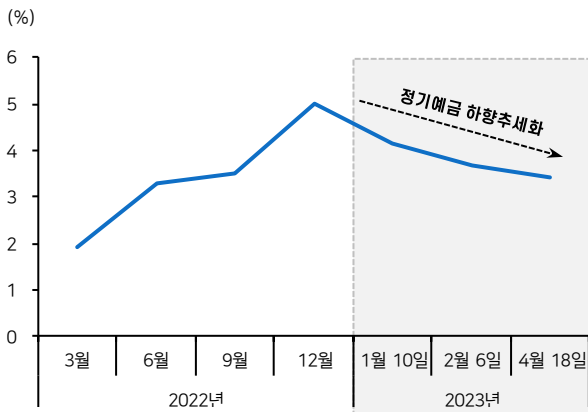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1 잔액 NIS 추이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2 4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추이



주: 12개월 만기 최고우대금리 기준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9 은행 상생금융패키지

KB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대출 금리 최대 0.5%p, 전세대출 및 주담대 금리 최대 0.3%p 인하 2금융권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바꿔주는 'KB국민희망대출' 출시
신한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담대 금리 0.4%p, 전세대출 0.3%p 인하 신용대출 금리 0.4%p, 새희망홀씨대출 금리 1.5%p 인하
하나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햇살론15 고객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 현금으로 환급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고정금리 특판 대출 출시
우리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담대 금리 0.7%p, 전세대출 0.6%p, 신용대출 0.5%p 인하 5,000억원 규모 도약대출, 1만명 대상 금융바우처 제공 등 청년 금융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긴급대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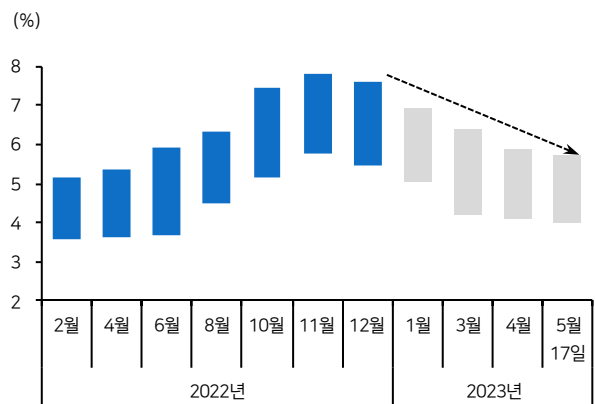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0 시중은행 대출금리: 1월 vs 4월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1월	4월	(bp)	1월	4월	(bp)
KB국민	5.36	4.73	-63	6.57	5.98	-59
신한	5.61	4.82	-79	6.6	5.57	-103
하나	5.02	4.59	-43	6.32	5.63	-69
우리	5.36	5.23	-13	6.46	5.8	-66
단순평균	5.34	4.84	-50	6.49	5.75	-74

자료: 각 사, 언론보도,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3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 추이



자료: 각 사, 언론보도,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1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3.01	'23.02	'23.03	'23.04	(bp MoM)
잔액	대출금리	3.71	3.91	4.12	4.38	4.68	4.92	5.06	5.11	5.13	5.13	0
	기업대출	3.78	4.00	4.24	4.54	4.87	5.13	5.24	5.24	5.23	5.20	(3)
	대기업	3.57	3.75	4.00	4.33	4.64	4.85	4.95	4.95	4.95	4.93	(2)
	중기	3.83	4.05	4.30	4.59	4.92	5.19	5.31	5.30	5.29	5.26	(3)
	가계대출	3.64	3.80	3.98	4.18	4.43	4.66	4.84	4.95	5.01	5.04	3
	주담대	3.17	3.27	3.38	3.52	3.66	3.83	3.96	4.05	4.12	4.16	4
	신용	4.75	5.01	5.29	5.61	5.96	6.22	6.34	6.37	6.38	6.35	(3)
	예금금리	1.33	1.48	1.66	1.92	2.17	2.37	2.48	2.51	2.53	2.55	2
	요구불	0.40	0.45	0.45	0.50	0.50	0.52	0.59	0.63	0.61	0.63	2
	저축성	2.06	2.26	2.54	2.90	3.25	3.61	3.73	3.77	3.82	3.83	1
시장성	2.06	2.24	2.43	2.66	2.91	3.10	3.18	3.24	3.30	3.35	5	
	NIS	2.38	2.43	2.46	2.46	2.51	2.55	2.58	2.60	2.60	2.58	(2)
신규	대출금리	4.21	4.52	4.71	5.26	5.64	5.56	5.46	5.32	5.17	5.01	(16)
	기업대출	4.12	4.46	4.66	5.27	5.67	5.56	5.47	5.36	5.25	5.09	(16)
	대기업	3.84	4.23	4.38	5.08	5.41	5.32	5.30	5.24	5.19	5.01	(18)
	중기	4.36	4.65	4.87	5.49	5.93	5.76	5.67	5.45	5.28	5.14	(14)
	가계대출	4.53	4.76	5.15	5.34	5.57	5.60	5.47	5.22	4.96	4.82	(14)
	주담대	4.16	4.35	4.79	4.82	4.74	4.63	4.58	4.56	4.40	4.24	(16)
	신용	5.91	6.24	6.62	7.22	7.85	7.97	7.21	6.55	6.44	6.30	(14)
	예금금리	2.93	2.98	3.38	4.01	4.29	4.22	3.83	3.54	3.56	3.43	(13)
	저축성	2.82	2.91	3.35	3.97	4.29	4.22	3.87	3.53	3.53	3.41	(12)
	시장성	3.28	3.23	3.49	4.27	4.30	3.97	3.70	3.57	3.70	3.50	(20)
	NIS	1.28	1.54	1.33	1.25	1.35	1.34	1.63	1.78	1.61	1.58	(3)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은행 건전성 동향

은행 3월 연체율 0.33% (-3bp MoM, +8bp YTD)

은행 3월 연체율은 전월대비 3bp 하락한 0.33%를 기록하였다. 이는 3월 중 연체 채권 정리규모가 2.4조원(20년 6월 이후 최대 수준)으로 전월 0.8조원대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통상 은행들은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한다. 이 외 최근 가파르게 하락된 대출금리 인하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 기업대출 연체율 0.35% (-4bp MoM, +8bp YTD)

기업대출 연체율 중 대기업 및 중소기업 부문은 각각 전월대비 flat, 6bp 하락한 0.09%, 0.41%를 기록하였다. 중소기업 부문 중 개인사업자 부문은 전월대비 2bp 하락한 0.37%를 기록하였다. 부문별 모두 19년 3월에 비해 낮으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연초대비 각각 9bp, 11bp 상승한 수준이다.

2) 가계대출 연체율 0.31% (-1bp MoM, +7bp Y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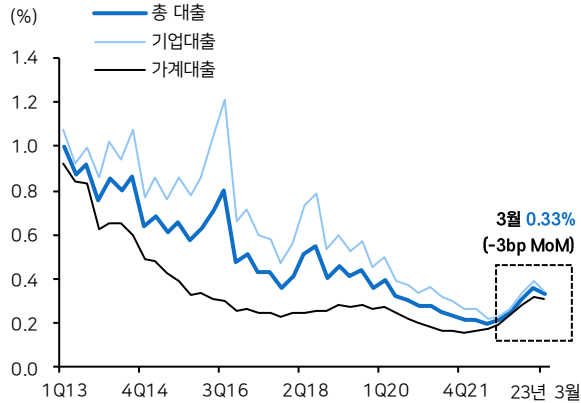
가계대출 연체율 중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대비 flat한 0.20%를 기록하며 여전히 19년 3월에 비해 1bp 낮은 수준 유지 중이다. 작년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신용대출은 전월대비 5bp 하락한 0.59%를 기록했으나, 이는 1) 연초대비 13bp 상승한 수준이며, 2) 19년 3월에 비해 14bp 높은 수준이다.

4월 5대 은행 연체율 0.30% (+3bp MoM, +12bp YoY)

3월 부실채권 매각 영향으로 은행 연체율이 소폭 하락세로 진정된 것으로 보이나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5대 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NH)의 4월 말 평균 원화 대출 연체율은 0.304%로(vs. 3월 0.272%, 22년 4월 0.186%) 보도되었다. 부문별로 1) 기업대출은 0.328%(+3bp MoM, +12bp YoY), 2) 가계대출은 0.270%(+3bp MoM, +12bp YoY)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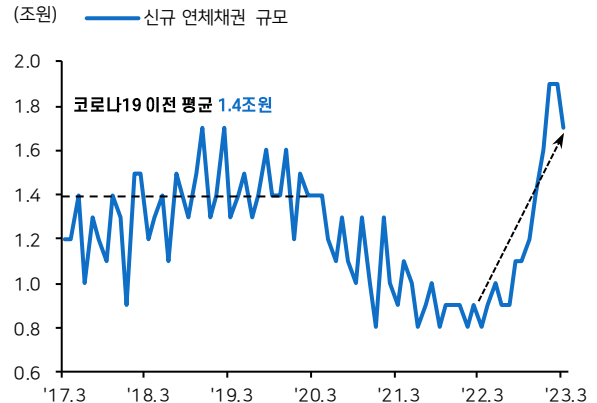
하반기 중 상대적으로 취약 차주의 노출도가 높은 은행들 중심으로 대손비용에 대한 부담이 우선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별 건전성 관리 역량 증명이 필요한 국면으로 1) 대출자산대비 선제적 대손충당금 규모가 높거나, 2) CET-1 자본비율이 높은 은행들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64 은행 연체율 추이



자료: 금감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5 은행 신규 연체채권 규모 추이



주: 18년 3월 성동조선해양의 회생 신청 인한 신규연체 2.2조원 발생 제외 기준
자료: 금감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2 은행 신규 연체채권 규모 및 연체채권 정리규모 추이

(조원)	2022년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신규 연체채권 규모	0.8	0.9	0.8	0.9	1.0	0.9	0.9	1.1	1.1	1.2	1.4	1.6	1.9	1.9	1.7
연체채권 정리 규모	0.5	0.5	1.5	0.5	0.9	1.6	0.5	0.6	1.7	0.6	0.8	1.9	0.6	0.8	2.4

자료: 금감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3 은행 부문별 연체율

(% , %p)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MoM	vs. 2019년 3월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월	2월	3월		
총 대출	0.30	0.28	0.28	0.25	0.24	0.21	0.22	0.20	0.21	0.25	0.31	0.36	0.33	(0.03)	(0.13)
기업대출	0.37	0.34	0.37	0.32	0.30	0.26	0.26	0.22	0.23	0.27	0.34	0.39	0.35	(0.04)	(0.24)
대기업	0.28	0.27	0.36	0.37	0.28	0.24	0.23	0.14	0.05	0.05	0.09	0.09	0.09	0.00	(0.65)
중소기업	0.40	0.36	0.37	0.31	0.30	0.27	0.27	0.24	0.27	0.32	0.39	0.47	0.41	(0.06)	(0.15)
개인사업자	0.25	0.21	0.21	0.18	0.19	0.16	0.17	0.16	0.19	0.26	0.33	0.39	0.37	(0.02)	(0.01)
가계대출	0.22	0.20	0.18	0.17	0.17	0.16	0.17	0.17	0.19	0.24	0.28	0.32	0.31	(0.01)	0.02
주택담보대출	0.16	0.14	0.12	0.11	0.11	0.10	0.10	0.10	0.10	0.10	0.18	0.20	0.20	0.00	(0.01)
가계신용대출	0.36	0.34	0.32	0.30	0.30	0.29	0.31	0.34	0.34	0.34	0.55	0.64	0.59	(0.05)	0.14

자료: 금감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4 5대 은행 2023년 4월 연체율·신규연체율·고정이하여신(NPL)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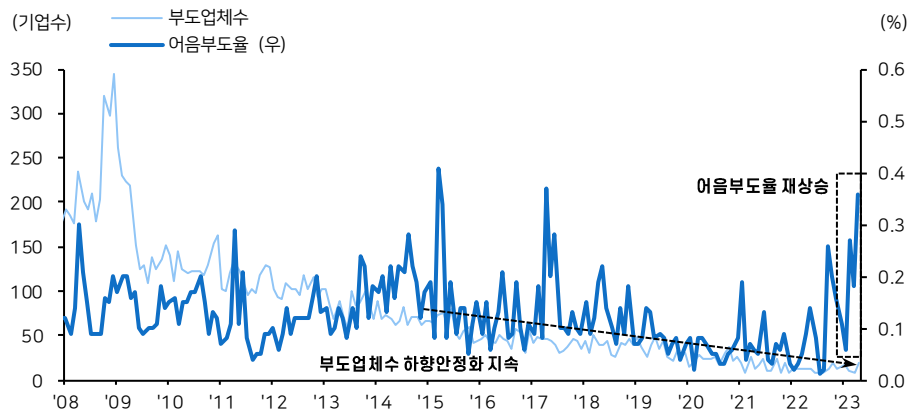
(%)	연체율			신규연체율			NPL비율
	가계	기업	합계	가계	기업	합계	
평균	0.270	0.328	0.304	0.072	0.094	0.082	0.250
(bp MoM)	3	3	3	0	1	1	1
(bp YoY)	12	12	12	3	5	4	2

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평균 기준
자료: 각 사, 언론보도,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4월 어음부도율 0.36% (+18bp MoM), 부도업체수 19개 (+11개 MoM)

전국 어음부도율은 4월 0.36%로 전월대비 18bp 상승하였다. 이는 작년 9월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영향이 있었던 작년 9월 0.26%로 비해 높은 수준이다. 동기간 부도업체수는 19개로 전월대비 11개 증가하였다. 일부 부동산PF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나, PF 관련 여러 정부지원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현 상황 고려 시 추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66 부도업체수, 어음부도율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5 은행 Valuation table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기업은행	BNK금융	DGB금융	JB금융	카카오뱅크
종목코드		105560	055550	086790	316140	024110	138930	139130	175330	323410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주가		47,450	34,950	41,650	11,890	10,240	6,780	7,060	8,530	26,550
목표주가 (원)		62,000	46,000	54,000	15,000	13,000	8,200	8,500	10,500	33,000
상승여력 (%)		30.7	31.6	29.7	26.2	27.0	20.9	20.4	23.1	24.3
목표 P/B (배)		0.5	0.5	0.4	0.4	0.4	0.3	0.3	0.4	2.6
목표 P/E (배)		5.1	5.1	4.4	3.5	3.9	3.2	3.2	3.5	47.3
지배순이익	2022	4,395	4,642	3,552	3,142	2,774	810	402	601	263
(십억원)	2023E	4,772	4,711	3,671	3,134	2,815	825	452	598	332
	2024E	4,965	4,943	3,939	3,241	3,103	877	484	624	406
PER (배)	2022	4.3	4.0	3.5	2.7	2.9	2.6	2.9	2.6	44.0
	2023E	3.9	3.9	3.4	2.8	3.1	2.7	2.6	2.8	38.1
	2024E	3.8	3.7	3.1	2.7	2.8	2.5	2.5	2.7	31.2
PBR (배)	2022	0.44	0.44	0.38	0.34	0.33	0.23	0.24	0.37	2.03
	2023E	0.40	0.40	0.35	0.32	0.32	0.22	0.23	0.36	2.09
	2024E	0.37	0.37	0.32	0.30	0.30	0.21	0.22	0.33	1.98
EPS (원)	2022	11,180	8,899	12,005	4,315	3,418	2,486	2,374	3,051	552
	2023E	12,139	9,031	12,406	4,305	3,310	2,532	2,671	3,035	697
	2024E	12,631	9,476	13,310	4,452	3,637	2,690	2,860	3,169	851
BPS (원)	2022	111,113	80,785	110,519	34,416	29,521	27,789	28,867	21,190	11,988
	2023E	119,302	87,352	119,451	37,145	31,871	30,321	30,680	23,709	12,705
	2024E	127,723	94,577	129,197	39,971	34,422	32,378	32,586	26,015	13,388
ROA (%)	2022	0.7	0.7	0.7	0.7	0.7	0.6	0.5	1.0	0.7
	2023E	0.7	0.7	0.6	0.6	0.6	0.6	0.5	1.0	0.7
	2024E	0.7	0.7	0.7	0.7	0.7	0.6	0.5	1.0	0.7
ROE (%)	2022	10.0	10.9	11.0	13.1	11.4	9.2	8.1	15.2	4.7
	2023E	10.5	10.7	10.7	12.0	10.8	8.7	9.0	13.5	5.6
	2024E	10.2	10.4	10.7	11.5	11.0	8.6	9.0	12.7	6.5
DPS (원)	2022	2,950	2,065	3,350	1,130	960	625	650	835	80
	2023E	3,170	2,100	3,400	1,130	970	640	730	830	80
	2024E	3,430	2,300	3,800	1,210	1,090	690	800	880	90
배당수익률 (%)	2022	6.1	5.9	8.0	9.8	9.8	9.6	9.3	10.6	0.3
	2023E	6.7	6.0	8.2	9.5	9.5	9.4	10.3	9.7	0.3
	2024E	7.2	6.6	9.1	10.2	10.6	10.2	11.3	10.3	0.3
배당성장 (%)	2022	26.2	23.5	27.5	26.2	29.2	25.0	27.4	27.0	14.5
	2023E	26.2	23.5	27.5	26.2	29.2	25.0	27.4	27.0	12.0
	2024E	27.2	24.5	28.5	27.2	29.7	25.5	27.9	27.5	10.0

주: 6월 2일 종가 기준, 2023년 5월 30일 발간된 자료와 동일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기준 변경 시행)

기업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증가대비 3등급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이상 Hold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이상 ~ +20% 미만 Sell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미만
산업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 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
추천기준일 시장지수대비 3등급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투자의견 비율

투자의견	비율
매수	85.3%
중립	14.7%
매도	0.0%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